



서울대학교동창회

동창회 지표 •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金在淳
편집인 鄭宗澤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121-04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5 FAX: 703-0755
인쇄처 한길기획

은행지로번호 7500875
대체구좌 010017-31-0621565

제 238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8년 1월 15일

【1】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金千一 作(작가 약력 3면)

겨리와 함께 미래로! 세계로!

관약춘추

새해의 첫 아침을 元旦이라고 한다. 元은 으뜸중의 으뜸, 새로운 생명의 창조를 가리키며 旦은 해가 솟아오르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렇듯 우리의 조상들은 옛부터 새해의 새아침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새해가 오면 지난 일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해의 꿈을 펼치기 위한 전기를 찾았다. 元旦은 또한 묵은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送舊迎新의 뜻을 갖기도 했다.

지난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그중에서도 특기할만한 것은 아마도 대통령선거와 IMF의 상륙일 것이다. 대선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로 여야의 평화적 정권교체의 꿈을 실현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정치적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경제면에서 우리는 IMF의 수원국으로 전

새해 아침에

락했다. 한강의 기적을 낳고 경제발전의 모범을 자랑했던 우리의 경제는 깊은 늪속에 빠지고 말았다.

이렇듯 영욕의 유산을 안고 새해는 시작됐다. 이런 속에서 새해의 꿈을 펼친다는 것은 예상외로 일이 아님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새해의 급선무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는 일일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관계당국의 현명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협조와 동참이다.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나라가 어려울 때면 언제나 국민이 앞장서서 국난을 극복했다. 지난 연말부터 일기시작한 경제살리기 운동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한결 든든해진다.

우리 동문은 그동안 이 나라의 각계각층에서 지도적 역할을 해왔다. 그만큼 앞으로의 나라 살림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때가 되었다.

새해의 23만 동문의 건승과 난국타개를 위한 헌신적 노력을 기대한다.

(榮)

신년인사

희망을 찾는 곳에 길이 열릴 것입니다

서울대총동창회 金在淳회장



戊寅年 1998년 새해 새아침을 맞이하여 23만 서울大人 여러분에게 삼가 인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神의 恩寵이 여러분 가정마다 充滿하여 새로운 希望과 幸運이 같이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지난해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韓國은 마치 긴급환자실에 실려온 重患者」라고 표현한 美國의 識者도 있었습니다. 金融 파탄이 휘몰아친 우리네 經濟에 대하여 悲觀論만이 國內外에 미만했던 年末이었습니다. 암울한 面만이 強調되어 그것이 悲觀論을 增幅하는 惡循環에 빠졌던 세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敬愛하는 서울大人이여!

이럴 때 우리 民族의 長點을 再發見하면서 답답하고 허탈한 感傷에 휩싸인 現狀을 打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必要한가, 무엇이 앞서고 무엇이 뒤서야 하는가 냉철한 知性으로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의 根源이 指導者-指導力의 危機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定評입니다. 이 나라 指導力의 源泉이 서울大人을 제쳐놓고 어디에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울大人은 조국앞에 無限責任이 있음을 거듭거듭 다짐합니다.

어디서 무엇에 종사하든지 간에 이 苦難의 시기를 이겨나가는 責任이 서울大人에게 있음을 自覺합니다. 希望을 찾는 곳에 길이 열릴 것입니다.

同門 여러분의 健闘을 合掌 祈願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에 동문 모두 앞장서자

서울대학교 鮮于仲皓총장



친애하는 동문 여러분!

무인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해이건 마찬가지로 새해를 맞이할 때면 누구든지 올

해에는 보다 더 희망차고 새로운 발전을 하리라고 기대하고는 하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그림자가 앞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한결 무겁습니다. 외환의 부족으로부터 시작된 경제위기가 이제는 견잡을 수 없는 심리적인 침체로까지 연결되면서, 60년대 이전의 가난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오직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매진하여 왔으며,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 오늘과 같은 우리의 생활수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여태껏 쌓아온 이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난국은 우리를 보다 더 튼튼하게 만들려는 시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역경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외환위기로부터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이것은 우리 국민의 총체적인 부실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반성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어떤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기 이전에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번 경제위기도 물론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지만 그들만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함께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근면 검소하고, 절약하며 도덕성과 질서를 중요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러한 아름다운 관습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부정과 부패, 사치와 낭비, 이기주의와 물질주의가 판을 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회 풍조 속에서는 아무리 경제가 발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선진국의 국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여야 하였습니다.

친애하는 동문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라를 위하여 앞장서는 사람은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세계 2차대전이 발발하자 영국의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졸업생들이 제일 먼저 전선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 동문 모두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서, 선진국으로의 행진을 계속해 나아갑시다.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회사 朴英俊·朴柱鐸감사 재선임



재단법인 관악회(이사장 金在淳)는 지난 12월 11일 신라호텔 PLUM에서 제7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심의한 98년 예산안은 세입부분으로 동창회관 임대·관리수입 3억8천7백20여만원, 기금이자수입 3억2천만원을 확정하고, 세출부분은 목적사업비 3억7천만원을 포함 7억5천2백여만원으로 확정했다. 세입의 부족부분은 동창회에서 기금전입을 받아 원활한 목적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편성했다.

특히 98년 예산에서 목적사업비가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로 인해 일반장학금(모교 지원 기업장학금)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동창회에서라도 솔선수

범하여 재학생의 면학을 도우려는 취지에서 96년부터 시작한 특지장학금의 지급확대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9천여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의결을 미루어왔던 동창회관 건물에 대한 기본재산 편입을 의결함으로써 재단법인 운영을 관련 법령에 부합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비했으며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변경에 따라 정관 제13조(예산외의 부채 부담 등),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12월 10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朴英俊, 朴柱鐸감사를 재선임했다.

마산 지부

전임 姜來烈회장 감사패 받아



마산지부동창회(회장 宋國憲)는 지난 12월 12일 마산시 내 롯데크리스탈호텔에서 7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宋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동안 단과대학별 동창회의 활성화 및 동문 상호간의 긴밀한 유대를 강화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이 아쉽다』

고 말하고 『앞으로 총동창회와 연대하여 더 나은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서 宋회장은 전임 姜來烈회장에게 그동안 동문들의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참석한 동문 모두에게 기념품을 증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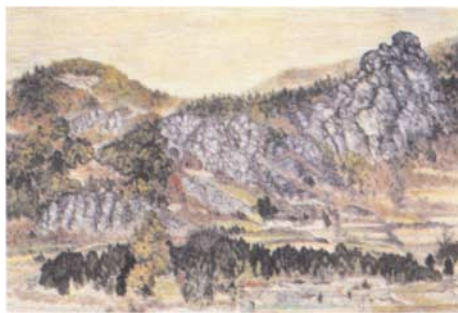
(變)

주요목차

기획탐방	8면
데이콤	
동문을 찾아서	9면
姜錫圭·趙南弘동문	
화제의 동문	22면
林脈澤·徐東和동문	

미술작품

金千一作



「聖者洞 II」, 180X220cm, 채색, 1997.

〈작가 약력〉

- △79년 미대졸
- △85~97년 개인전 4회
- △94년 동학혁명 1백주년 기념전
- △95년 한국전통산수화전
- △96년 의재미술상 기념 초대전
- △97년 목포-파리 교류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청년정신전

△현재 목포대 교수



국내 제1호 디자인學 박사 朴大淳동문

집안의 동문중 절반이 같은 科 출신

『서울대 동문이 가족중에 많다는 것이 든든한 힘이 되고 매우 자랑스럽다』며 기자에게 처음 화두를 건넨 우리나라 제1호 디자인學 박사 朴大淳(55년 美大卒)동문.

현재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인 朴동문은 모교 재학당시 6·25라는 힘든 시절을 겪으면서도 디자인학의 정립을 위해 누구보다 애써왔다.

우리나라 디자인계의 선구자적 역할과 토양적 역할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朴동문은 예전엔 우리나라에 디자인 박사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15년간이나 박사과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88년 8월에 들어서야 한양대학교에서 디자인학전공의 이학박사 학위를 국내 최초로 취득했다.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학장과 한국디자인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朴동문은 KOC와 아시안게임, 서울올림픽 개·폐회식 Art Director로 활동, 대통령 포장을 3회 수상한 바 있다.

朴동문은 『디자인은 과학적 소양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해야한다』며 자신의 두 딸과 며느리도 모두 동문으로 같은 科 출신이라는 것을 매우 흡족해 했다. 또한 朴동문은 가족사항에 대해 1

남 5녀이지만 자신은 항상 5남 4녀 칭한다고. 이는 4명의 사위도 모두 자신의 아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들 가족 중 모교 동문은 朴동문을 포함 모두 6명이다.

같은 科 출신으로 가업을 잇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 두명의 딸중 朴恩實(88년 美大卒)동문은 모교 산업디자인과와 대학원을 졸업하여 현재 서울방송 Art-Director로 활동 중이며, 朴恩璟(93년 美大卒)동문은 모교 산업디자인과와 대학원을 졸업, 삼성전자 멀티미디어 사업부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한 바 있다. 넷째 사위인 姜東郁(92년 法大卒)동문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서울지방법원 형사 항소2부 판사로 재직중이며, 다섯째 사위인 李俊基(90년 法大卒)동문은 사법고시를 패스한 후 태평양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인 申靑雨(88년 美大卒)동문은 모교 산업디자인과와 대학원을 졸업하여 현재 성심여대와 신구전문대 강사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다른 자녀도 타 대학 교수 및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아들인 朴來協씨는 한양대를 졸업하고 현재 혜명유치원을 경영하고 있다.

朴동문은 자녀들이 아무 탈없이 자라는데 대해 흡족해 하며, 부인 崔荏子여사가 뒤에서 수고해준데 대해 항상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가훈을 「근면·성실·정직·봉사의 정신으로 살자」라고 설명한 朴동문은 그만의 교육관으로 『전공보다는 인간교육이 먼저 선행돼야 하며, 인성교육이 첫째고 다음에 전문교육이 돼야 올바른 인재가 양성된다』고 말했다.

동창회 활동도 왕성한 朴동문은 현재 미대 82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15명의 회원이 있다. 同會는 49년 모교 입학동기 모임이며 99년에는 「입학 50

년 예술반세기·외길반세기」라는 전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신의 분야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외길만을 걸어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미개척분야에서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을 겪으며 디자인 분야의 외길을 걸어온 朴동문은 가족들에게 항상 『자신이 선택한 길은 목표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하며 험하더라도 꾸준히 매진할 때 언젠가는 결실을 볼 수 있다』고 말하며 『이왕이면 손자·손녀도 서울대를 나와 이 분야의 동문이 점차 집안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信)



앞줄 좌로부터 첫번째 朴동문, 뒷줄 좌로부터 두번째 申靑雨·朴恩實·李俊基·朴恩璟 동문, 맨끝 姜東郁동문.



한국도로공사 지부

투병중인 동문 돕는 등 끈끈한 정 나뉜

한국도로공사에 서울대 동문모임이 시작된 것은 74년에 첫 모임을 가지면서부터이다. 당시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역앞 삼주빌딩(현재 LG빌딩)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때 金東漢(48년 工大卒)동문을 중심으로 50여명이 뜻을 모아 출발했다.

이후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77년에 총동창회로부터 한국도로공사 지부로 승인됐다. 초대 회장에 張東旭(54년 工大卒)동문, 간사에 姜幸彦(65년 工大卒)동문이 선출됐고 이공계 출신 동문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했다. 이러한 결실로 92년(회장 韓勳鎬·59년 法大卒, 간사 姜鎬益·69년 工大卒)에는 총동창회로부터 모범지부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 회원은 총 56명으로 성남 본사에 31명, 지사 및 사업소 등 지방근무에 25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姜龍圭(67년 農大卒)회장과 간사를 맡고 있는 필자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동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뛰고 있다.

본회의 특이한 점은 연구분야에 근무하는 도로연구소 소속동문들이 24명으로 전체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들은 대부분 석·박사들로서 한국의 도로기술 일류화를 위해 열심히 연구정진하고 있으며 회사의 중요한 인



97년 가족동반 야유회(앞줄 좌로부터 첫번째 필자, 뒷줄 오른쪽에서 네번째 姜희장)

재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를 거친 OB동문들도 40여명 정도가 되어 한국도로공사 지부를 밖에서 힘차게 지원하고 있다. 특히 OB동문들은 건설 및 토목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사들이 대부분이고 현재도 한국도로공사와 계속해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실정이다.

본회의 활동내역을 살펴보면, 연중전·후반기 두차례의 정기모임을 갖고 있으며 봄·가을에 가족동반 야유회 및 등산을 매년 모교 버들골과 관악산에서 열고 있다. 총동창회의 추진사업인 모교 발전기금 모금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동문들의 사진과 주소가 수록된 수첩을 자체 제작하여 소지

하면서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든지 동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올해 동정을 살펴보면, 그동안 한국도로공사 감사로 재직했던 柳元圭(62년 工大卒)동문이 천안-공주간 고속도로 주식회사 사장으로 부임해 갔으며, 李 埈(67년 工大卒)본부장은 자회사인 고속도로감리공단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로 인해 구심점 역할을 해온 선배 동문들이 한국도로공사를 떠난 아쉬움이 있지만, 더 많은 수의 신입동문들이 계속해서 들어와 새로운 활력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회원들도 많이 입사하면서 기존의 토목회사라는 딱딱한 분위기를 많이 부드럽게 만들고 있고, 특히 근래 2~3년

글: 金性煥(84년 農大卒)간사

동안은 연구업무분야에 대해 우리 동문들이 들어오면서 도로연구소의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에는 동문들의 따뜻한 정으로 본회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는 미담이 있었다. 다름아닌 황부연(94년 工大卒)동문이 신장병으로 투병생활을 하는 것을 알고 동문들이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하여 무사히 신장이식 수술을 받게했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사에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모친께서 병환으로 서울대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곤란을 겪고 있었던 薛雲昊(87년 工大卒)동문에게도 동문들이 뚝뚝 뭉쳐 도와줌으로써 끈끈한 정을 느끼게 해주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렇듯 본회의 동문들은 비록 적은 인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회원들과 OB동문들이 합심단결하여 동문의 일이 곧 자신의 일이라는 기치아래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의 경향처럼 새로운 신입 동문 가족들이 계속해서 가입함으로써 앞으로는 더욱 발전될 것으로 믿고 있다.

또한 우리 동문들은 21세기 세계일류 기업으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인재들로서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일등직원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모임 採訪

경영대학원 석사 6회 출신 석류회

세미나·토론 통한 흐뭇한 만남

석류회는 71년 3월 경영대학원 입학 을 계기로 만난 동문들이 만든 모임으 로 이름 그대로 석사 6회를 줄인 의미 와 석류꽃처럼 언제나 붉은 열정과 유 용하게 쓰이는 열매처럼 사회의 곳곳에 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 를 담고 있다. 약 50여명의 회원들이 비록 같은 해(73년)에 졸업하지는 못 했지만 석류회의 이름아래 지속적인 만 남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30여년의 만남을 이어온 회원들은 회장직을 맡고 있는 姜熙慶 (기업은행 경영상담 부장)동문을 중심 으로 해마다 계절별로 만나오고 있으 며, 다른 친목 모임과는 다르게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한 토론을 벌여오면서 동 시에 학식과 식견을 넓히며 학구적인 분위기를 지속해오고 있다.

재학당시부터 강의시간 이외에도 자 주 모여 앉아 경제 전반에 관해 실질적 이고 다각적인 토론을 벌여 서로에게 유익한 정보를 나누기도 했다.

석류회가 그동안 실행에 옮긴 주제 발표 내용을 몇 가지만 소개하면 「맥주 회사 성공사례를 중심으로한 기업마케 팅 전략」(安吉相 충북대 교수), 「향후

멀티미디어 발전방향 예측」(沈正弼 미 시시피주립대 교수), 「중소기업의 실질 적인 재무관리 사례」(姜熙慶 기업은행 부장), 「바다로 세계로」(安炳泰 前해군 참모총장), 「조선3사를 중심으로한 조 선업계의 수출시장」(安鍾常 삼성중공 업 전문), 「기업문화형성과 예술경영실 태」(李永斗 한림문화센터 관장), 「반도 체 시장에서의 기업간 제휴실태와 전 망」(朴宗燮 현대전자 미국현지 대표), 「기업환경 변화와 국제화 추진 자세」 (崔景秀 회계사무소 대표), 「성공과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한 주식투자와 개인 투자자의 자세」(全永男 삼성증권 전 무) 등이 있다.

석류회가 자랑하는 또하나의 특징은 회원 가족간에도 친목과 단합의 의미를 다져 화합의 장을 넓혀 왔다는 것이라 고 姜회장은 말했다.

『이제 우리 모임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회원 모 두가 재계와 인연을 맺고 있으니 좀더 활발한 토론과 세미나를 통하여 IMF 시대의 경제위기를 뚫을 수 있는 방안 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姜회장은 자신감을 나타냈다. 〈美〉

추억의窓



54년 수도육군병원 앞(필자 左)

朴明子(56년 看護大卒)

석관중학교 교장

6·25 전만 해도 서울대학교 의과대 학 안에는 합춘원 동산에 아름다운 벚 꽃 길이었다. 봄부터 우리들은 매일 같이 학교가 끝나면 간호사, 의사, 간 호학생, 의대생들이 흰 가운이나 또는 갑사, 치마저고리에 예쁘게 단장을 하 고 자리를 깔고 앉아 학술토론도 하며 때로는 버찌를 따 먹기도 하고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즐 거움이었요 평화로운 나날이었다.

6·25당시 피난 못하고 환자 돌봐

중환자는 흰봉대로 사망대기 표시해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6·25 동란이 발발하여 평화스럽기만 하였던 학교는 수리장이 되고 말았다. 1950년 6월 25 일 대학에서는 14:00경 학도호국단 간 부학생들(의대생 및 간호학생) 약 30 명 가량이 모여 전선의 육군 환자를 응 급처치하기 위하여 머리에는 타월을 묶 고 일제 닛상트럭에 승차해 의정부 방 향으로 출발하였으나 미아리고개에 도달하였을 때 그곳에 방어진을 치고 있던 육군병력의 저지로 되돌아오게 되 어 우리가 탄 트럭은 동성고등학교로 갔다.

그곳 강당에 가보니 많은 육군 환자 들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게 아닌가. 우리 는 그곳에 있는 의사로부터 대량 사상

자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손을 댈 수 없는 가망이 없는 중환자에게는 봉 대를 잘라서 가슴에 달아 주라는 지시 를 받은 것이었으나, 우리는 뜻도 모르 고 전체 환자들에게 흰봉대를 잘라서 달 아 주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18:00경에 영등포 18육군 병원에서 환자 후송을 위하여 구급차가 왔으나 후송할 환자가 없다고 되돌아가 려는 것이었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흰색 표시는 사망대기 표시였던 것이 다. 그 후에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던가 싶다.

불과 3일만에 서울이 적의 수중에 들 어가는 혼란 속에서 군당국은 환자 후 송도 못하고 후퇴한 상황이었어서 경환자 는 개별적으로 후퇴하였지만 중환자는 그대로 입원중인 상태였다. 며칠 후인 가 갑자기 인민군환자가 들이닥쳐 제1, 2외과 병동에 입원해 한 병원 안에 민 간인, 국군, 인민군 세 종류의 환자가 입원이 되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 졌다. 국군이나 인민군 환자들은 상호 간에 같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내는 상태에서 어느날 병원 내에서 마주치게된 국군과 인민군은 서

로 소속부대를 확인하다가 적군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말다툼으로부터 시작하 여 급기야는 일시적이나마 총격전까지 벌어지는 험한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 다. 그 당시는 피차간에 총기를 각자 소지한 상태에서 입원하고 있었던 것이 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그때 동원된 간 부학생들은 피난갈 생각조차 할 겨를없 이 주야로 환자 간호에만 전념하던 중 인민군환자 후송과정에서 우리들 의료 진의 많은 인원이 강제로 인민군 치료 를 하면서 이북에까지 끌려 갔다가 구사일생 사선을 넘어 탈출한 동지도 몇 몇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곳 인민군 치 하에 억류됐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지 금도 가슴이 찡다.



97년 송년모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金在實, 金允相, 金吉永, 朴鍾植, 全永男, 安炳泰, 姜熙慶, 金 洋, 安吉相동문.

경제를 살립니다

PC통신 「천리안」 가입자 1백만명 돌파

전용망 확충 등 21세기 통신문화 창달에 기여



⑫(주)데이콤

「터치 터치 002」라는 로고로 우리에게 친숙해진 기업 (주)데이콤의 PC통신 「천리안」이 지난해 11월말로 가입자 1백만명을 돌파, 신문 방송 잡지에 이은 또하나의 정보전달매체로 자리잡으면서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데이콤 사장 郭治榮(65년 商大卒)동문은 『85년 사업을 시작한 천리안이 PC통신 대중화를 앞당겨 1백만명의 가입자를 확보, 정보통신 발전사에 큰 획



통신망 종합상황실

을 긋게 됐다』고 자평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보통신 전문회사로 지난 82년 출범한 데이콤은 그동안 행정전산망, 올림픽종합전산망(WINS) 등 시스템 통합 사업은 물론 85년 자체 제작한 생활정보 안내서비스망인 천리안으로 매직콜, 매직링크(통합전자상거래 서비스) 등 각종 첨단 정보통신 서비스를 개발, 보급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정보사회의 조기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천리안은 88년 5월 1천여명의 유료 가입자를 확보한 이래, 해마다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 통신시장 경쟁도입 정책에 부응해, 전국적인 사업다각화정책을 추진, 국제전화 「002」와 시외전화 「082」 서비스를 개시하여 음성전화시장에 진출했다.

또한 96년 6월 정부의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시에는 데이콤을 비롯한 한전, 삼성, 현대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총 4백40여 회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하나로 통신(가칭)」이 제2시대전화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전기통신 1백년 역사상 마지막 독점사업으로 남아있던 시내전화부문에서도 경쟁기반을 확립했다.

이것으로 데이콤 자체의 고도화된 통신망을 국제, 시외전화 등의 기간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회사 서비스 전체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근래에는 차세대 이동통신으로 각광받고 있는 개인휴대통신(PCS)과 무선데이터통신 사업권을 획득해 무선통신 분야에도 참여하게 되는 등 사업영역을 꾸준히 넓혀왔다.

이와 같은 사업영역의 다각화에 힘입어 초창기 약 60억원 규모에 불과하던 자본금이 96년 말에는 7백13억원, 자산은 1조1천억원 규모로 크게 늘어났으며, 매출액 또한 연평균 30% 이상씩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PC통신 천리안 부문에서도 96년 5백31억원의 매출을 올려 5억원의 흑자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8백억원의 매출목표를 무난히 달성, 20억원의 흑자를 올렸다.

데이콤은 앞으로 WTO개방에 대비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진출 거점인 데이콤인터내셔널(DI)을 통해 활발한 해외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94년 12월부터 러시아 연해주 나홋카시에서 시내전화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인도에서는 히마찰라와 함께 합작법인인 HDIL社를 설립, 신용카드 조회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 저궤도위성사업(LEO)인 글로벌스타사업에 현대그룹과 함께 전체 지분의 6.4%에 달하는 3천7백50만달러를 투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등 6개국에 대한 사업권을 가지고 있으며, 96년 10월에는 폴란드에서 유·무선 전화와 CATV, SI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대우그룹과 함께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번 천리안 가입 100만명 돌파에 힘입은 데이콤은 PC통신이 전화만큼 보편화될 시대에 대비, 천리안 전용망을 위성과 케이블TV 등 여러 네트워크와 연계시켜 누구나 빠르고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해 2002년



郭治榮사장

4백만명의 가입자를 확보, 3천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최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수한 기술개발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안정적인 통신환경을 제공하여 21세기 정보사회의 뒷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전한 통신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겠다』는 郭동문은 데이콤의 미래를 다른 어떤 기업보다 한 걸음 멀리 내다보며 밝게 점치고 있다. (美)





범국민적 정신개혁 운동으로 전개

세계도덕재무장 한국본부 姜錫圭 총재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우리나라의 MRA운동을 활성화하는데 심혈을 다하여 총재직을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MRA회원 여러분과 각계의 보다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세계도덕재무장(MRA) 한국본부 총재에 선출된 姜錫圭(50년 工大卒)호서대 총장을 만나 MRA의 기본 취지와 역할 등을 알아보았다.

—MRA에서 주창하는 것은.

『MRA운동은 4가지 도덕표준인 절대정직, 절대순결, 절대무사, 절대사랑을 생활덕목으로 삼아 새사람, 새가정, 새사회, 새세계를 창조하여 우리 인류가 평화스럽고 번영된 삶을 살고자 하는데 기본이념이 있습니다. 요즈음과 같은 사회 현상을 생각하면 MRA운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를 바르게 인도하고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데 꼭 필요한 운동으로 모든 개인과 가정과 사회문제의 근본이 인간성의 상실에 있으므로 인간성을 회복하고 도덕적, 정신적으로 건전한 사회와 나라를 건설하는데 꼭 필요한 운동인 것입니다.』

—한국본부의 활동은.

『그간 MRA합창단 순회공연, MRA도덕대상 수여, 국제대회 파견,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MRA 이념과 더불어 올바른 삶을 살고, 전인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힘써 왔으며 앞으로는 시민사회운동과 도덕성 회복운동의 일환으로 국민정신 계몽 사업에 중점을 두고 범국민적 정신개혁 운동으로 전개할 생각입니다.』

—한국본부의 구성은.

『현재 張忠植(52년 師大入) 단국대 이사장, 卞柱仙(64년 師大卒)걸스카우트연맹 총재, 鄭根謨(59년 文理大卒)前과거 처 장관 등 이사 14명과 감사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시·도 지부에 각급학교별 MRA단원과 지도자, 그리고 회원 등 5만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본부의 재정지원은.

『MRA는 전세계적으로 이 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회원들의 기부금과 협조금 등으로 재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이나 특정인으로부터 거액을 기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마음과 뜻을 모아 이 운동을 위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



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나라의 MRA운동은 6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매우 활발하게 전국적인 규모로 활동하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쳐왔던 단체였으나 지난 10여년간의 활동은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미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전국의 중·고·

대학에 MRA단원을 조직하여 학교내에서 면학풍토와 봉사정신, 협동정신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도덕 부재에서 오는 가정, 사회, 국가의 제반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시민사회운동을 시작하여 범국민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變)



환경에 대한 올바른 시각 제공할 터

한국 전과정 평가학회 趙南弘 회장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는 원료의 취득, 제조, 사용, 재활용, 폐기에 이르는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도구로써 기업이 환경경영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평가방법이다. 「한국전과정평가학회(KSLCA)」는 아직 결음마 단계인 전과정평가를 보급하고 각종 사례연구의 검토를 통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며, 국내실정에 맞는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고 국내기업에 전과정평가와 관련된 최신 국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계와 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해 창립했다. 지난 12월 1일 초대 회장에 취임한 趙南弘(62년 文理大卒·經總 부회장)동문에게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창립 취지는.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정부기관의 효과적인 환경정책 수립을 돕고 기업체의 환경성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확보에 협력하며 소비자에게는 환경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제공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전과정평가의 장점은.

『전과정평가는 환경과 관련

된 모든 Input-Output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종합적인 환경성을 평가하는 기법으로 첫째, 환경면에서 가장 취약한 단계나 부분이 어디인지를 파악하게 하고 둘째, 이로 인해 환경부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셋째, 평소에 과학적 관리 마인드를 기업전체에 확산시키게 되어 최종적으로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달성할 수 있게 합니다.』

—학회의 구성은.

『회장 1인과 부회장 4인 그리고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로 구성되어 있고 업계와 학계로부터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관련협회 및 연구소 등도 단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부회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업계와 학계에서 각각 두분씩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어 산학연계를 강조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올해는 창립총회를 통해 학회활동을 준비하는 해로 보냈고 내년은 학회의 위상 정립의

해로 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춘계총회 및 매년 두차례의 학술발표회를 개최해 국내의 산업계와 학계에 전과정평가를 널리 보급하고 이로써 현재 각 사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연구에 대한 사례발표와 토론을 통해 상호경험이 공유될 수 있도록할 생각입니다.』

『또한 전과정평가 관련 최신 정보를 알릴 수 있는 소식지와 학회지를 연2회 발간해 회원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유도할 생각입니다. 이외에도 학계, 산업계, 연구소와의 연구에 대한 협력증진 사업을 통해 분야별, 주제별 연구결과와 상호교환이 확대되도록 하는 한편 국제학술대회 개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영난이나 인력난에 대한 생각은.

『경영난의 가장 큰 원인은 고비용, 저효율의 기업환경에서 연유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기업운영 방식의 투명성 제고로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 중요합니다. 인력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현상이 보입니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대기업은 자동화와 장치산업화 등을 통해 잉여인력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3D업종이라는 분야에 대한 취업기피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근로의식, 노동윤리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동문들에게 한말씀.

『어느 분야에서 일하는 정직과 근면은 반드시 지켜야할 덕목이라고 봅니다. 선진국 국민일수록 이러한 덕목이 몸에 배어 있지요. 이같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모든 동문들께 먼저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IMF체제를 하루빨리 극복해 나가기 위해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진력해주시길 바라며, 이 경제난국을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는 지혜와 용기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變)

이동 정

수상

▲**韓基彦**(49년 師大卒·모교 명예교수)=지난 12월 13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춘강기념사업회 기념식에

서 제11회 「춘강상(교육부문)」을 받음.

▲**金綺泳**(50년 醫大卒·유성영 화사 대표)=지난 12월 17일 문예진흥원에서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가 주최하는 「97최우수 예술인-공로상」을 수상함.

▲**鄭求榮**(57년 醫大卒·토마스 제퍼슨의대 교수)=지난 12월

3일 KBS가 제정한 제6회 「해외동포-특별상」을 받음.

▲**元潤洙**(58년 文理大卒·모교 교수)=지난 12월 10일 駐韓 프랑스대사관에서 韓-佛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기사단장」을 받음.

▲**李元暢**(58년 獸醫大卒·건국대 교수)=지난 12월 5일 한국 야쿠르트 빌딩에서 열린 대한 보건학회 창립 40주년 기념식에서 제11회 「보건대상(학술부문)」을 받음.

▲**具聖會**(59년 師大卒·서울보건전문대 교수)=지난 12월 5일 보건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한국 환경 위

생학회가 수여하는 제3회 「환경보건학술대상」을 받음.

▲**河旻喆**(61년 法大卒·대한변협인권위원장)=지난 12월 10

일 법무부에서 인권옹호 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수상함.

▲**高昌舜**(62년 大學院卒·모교 명예교수·대통령 주치의)=최근 대한 의료용구공업 협동조합과 후생신보가 공동 제정한 「대한의용생체 공학상-본상」을 받음.

▲**張喆薰**(63년 商大卒·조흥은행장)=최근 중소기업청 대강당에서 중소기업지원에 기여해온 공로로 제2회 「중소기업금융지원상」을 수상함.

▲**陳稔**(63년 商大卒·기아그룹 회장)=지난 12월 23일 노동부장관 시절 노사관계의 틀을 정비한 공로로 한국협상협회가 주는 제2회 「협상대상」을 수상함.

▲**朴映夏**(64년 工大卒·LG기공 사장)=최근 97 건설혁신 전국대회에서 「건설경영대상(전문 건설업 부문)」을 받음.

▲**南仲九**(64년 文理大卒·동아일보 논설주간·本報 論說委員)=지난 12월 26일 삼성언론재단이 제정한 「삼성언론상-논평비평부문」 수상자로 선정됨.

▲**韓明熙**(64년 音大卒·국립국악원장)=지난 12월 4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한복입는 날」 1주

년 기념식에서 문체부와 한복입는 날 추진위원회로부터 「한복애용자상」을 받음.

▲**李俊一**(65년 文理大卒·중앙대 광고홍보 연구소장)=지난 12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PR협회 「홍보인의 밤」에서 「한국PR상」을 받음.

▲**李一驪**(65년 商大卒·대우건설 사장)=최근 97 건설혁신 전국대회에서 「건설경영대상(종합건설업 부문)」을 받음.

▲**朴仁洙**(68년 音大卒·모교 교수)=지난 12월 4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한복입는 날」 1주년 기념식

에서 문체부와 한복입는 날 추진위원회로부터 「한복애용자상」을 받음.

▲**權五大**(69년 工大卒·포항공대 교수)=지난 12월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자클럽 정기총회에서 「올해의 과학자상」을 받음.

▲**曹道鉉**(71년 農大卒·아주대 교수)=지난 12월 10일 駐韓 프랑스대사관에서 韓-佛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기사훈장」을 받음.

▲**權奇洪**(73년 文理大卒·영남대 교수)=지난 12월 1일 대구 방송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97 TBC 자랑스런 대경인-대상」을 받음.

▲**梁仁模**(73년 行大院卒·삼성 ENG 대표)=최근 97 건설혁신 전국대회에서 「최고경영자상」을 받음.

▲**申喜燮**(74년 醫大卒·포항공대 교수)=지난 12월 6일 금호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4회 「금호문화재단 학술상」을 받음.

▲**金貳煥**(74년 新大院卒·아남그룹 전무)=지난 12월 15일 매일경제신문사가 주최한 제24회 「97 한국

광고인대상」을 받음.

▲**金泳楨**(78년 人文大卒·모교 교수)=언어분석철학 입문서인 「언어·논리·존재」(철학과 현실)로 지난 12월 8일 제16회 「열암학술상」을 받음.

▲**金美林**(89년 音大卒·모교 강사)=지난 12월 10일 문예진흥원에서 한국음악협회가 제정한 「97년 한국음악상」을 받음.

▲**鞠大鎬**(92년 美大卒)=최근 프랑스의 3대 미술살롱 중 하나인 「살롱 드 비트리」에서 올해의 대상을 받음.

▲**崔鉉烈**(3기 AMP·엔케이그룹 회장·대한농구협회장·冠岳會理事)=지난 12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3회 「스포츠서울 체육-공로상」을 수상함.

▲**趙炳華**(43년 師大卒·인하대 명예교수·시인)=지난 12월 16일 대한민국의 예술인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재선출됨.

▲**柳永玉**(52년 師大入·경기대

통일안보대학원장)=최근 한국 통일안보학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임됨.

▲**韓甲洙**(56년 文理大卒·前가스공사 사장)=지난 12월 1일 한국가스공사 임시 주총에서 제7대 사장에 선임

됨.

▲**文熙晟**(57년 工大卒·前한전 이사장)=지난 12월 12일 한국 에너지협의회 제29차 이사회에서 회장에 선임됨.

▲**鄭然世**(57년 工大卒·한국선급엔지니어링 회장)=지난 12월 22일 열린 海港會 총회에서 회장에 재선임됨.

▲**李景勳**(58년 工大卒·대우미국법인 회장)=지난 12월 8일 단행된 그룹인사에서 중국지역 본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김.

▲**張永壽**(59년 工大卒·대우건설부문 회장)=지난 12월 8일 단행된 그룹인사에서 베트남지역 본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김.

▲**俞東濬**(60년 農大卒·한국단미사료협회장)=최근 제19차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새로이 개정하고 상근

회장에 선임됨.

▲**李華榮**(61년 工大卒·모교 교수)=최근 충남대에서 열린 한국화학 공학회 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崔吉洙**(61년 醫大卒·모교 교수)=최근 오사카에서 열린 「제56회 일본 신경외과학회」 정기총회에서 명예회원으로 위촉됨.

▲**朴雲緒**(63년 文理大卒·前한국중공업 사장)=지난 12월 1일 한국중공업 임시 주총에서 신임 사장에 선

임됨.

▲**李宣**(63년 工大卒·한석엔지니어링 부회장)=최근 모교 환경대학원 도시·환경 고위정책 과정 2기 모

임인 「원우회」 정기총회에서

(11면에 계속)

제1회 「젊은 과학자상」 수상 崔海天·李相燁·朴鍾汶동문



崔海天동문



李相燁동문



朴鍾汶동문

지난 12월 11일 과거치가 선정하는 제1회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기계 재료계열의 崔海天(85년 工大卒·모교 교수)동문, 화공·생명계열의 李相燁(86년 工大卒·과학기술원 교수)동문, 건축·환경계열의 朴鍾汶(79년 工大卒·포항공대 교수)동문이 각각 선정됐다.

崔동문은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난류제어의 가능성을 최초로 제시하는 등 이 분야 연구를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으며, 李동문은 30여종의 재조합 대장균을 자체 개발

해 효율이 높은 완전 생분해성 고분자 생산공정을 확립했다. 또한 朴동문은 생활하수내 질소 및 인화물 제거 공정과 산업폐수내 폐놀 등의 난분해성 유독물질 제거를 위한 공정개발에 뛰어난 연구업적을 보이고 있다.

이 상은 97년 공학부문 수상자 선정을 시작으로 올해는 자연과학부문에서 4명을 선정하는 등 부문을 바꿔 매년 시행될 예정이다. 수상자들은 대통령 상장과 함께 매년 3천만원씩 5년간 연구비를 받게 된다. (美)

제1회 「롯데 펠로우십」 모교 교수 7명 선정돼

지난 12월 8일 롯데호텔에서는 롯데장학재단이 마련한 제1회 「롯데 펠로우십」 연구비 전달식이 개최됐다.

기업이 어려울수록 기초과학의 투자가 위기극복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모교 교수인 申東雨(81년 自然大卒), 金大植(85년 自然大卒), 徐正憲(71년 文理大卒), 金聖根(80년 自然大卒), 鄭鎮河(74년 文理大卒), 金坵(68년 文理大卒), 盧泰熙(85

년 師大卒)동문이 선정됐다.

이번 「롯데 펠로우」선정은 롯데장학재단과 모교가 공동 심사위원회를 구성, 최근 5년간의 해외발표 논문과 연구수준 등을 종합 평가한 뒤 30여건의 연구과제 중 7건을 엄선해 이뤄졌다.

同재단은 앞으로 2년에 걸쳐 4억원의 연구비를 아무 조건없이 지원할 예정이며, 이날 1차로 2억원의 연구지원금을 전달했다.

(信)



에서 문체부와 한복입는 날 추진위원회로부터 「한복애용자상」을 받음.

이동·선임

▲**趙炳華**(43년 師大卒·인하대 명예교수·시인)=지난 12월 16일 대한민국의 예술인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재선출됨.

▲**柳永玉**(52년 師大入·경기대

(10면에 이어)

회장에 선출됨.

▲李鍾注(63년 醫大卒·한림대 교수)=지난 11월 23일 셰라톤 워커히호텔에서 열린 피부과학회 총회에서 회장에 선임됨.

▲劉洪鍾(64년 法大卒·현대할 부금용 대표·대한양궁협회장)=지난 11월 2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시아양궁연맹 총회에서 제6대 회장에 선출됨.

▲尹永錫(64년 商大卒·대우그룹 총괄회장·本會 副會長)=지난 12월 8일 단행된 그룹인사에서 미국지역 본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김.

▲申勝教(65년 工大卒·LG건설 사장)=최근 단행된 그룹인사에서 내년도 출범예정인 LG동대표이사에 선임됨.

▲申鉉周(66년 工大卒·LG유화 부사장)=최근 단행된 그룹인사에서 LG엔지니어링 대표이사에 선임됨.

▲金華榮(66년 文理大卒·고려대 교수)=최근 고려대에서 열린 한국불어불문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임됨.

▲閔壽基(66년 商大卒·LG화재 보험 사장)=최근 단행된 그룹인사에서 LG건설 대표이사에 선임됨.

▲申相斗(66년 司大院卒·수석 감사위원)=지난 12월 16일 임기가 만료된 李時潤(58년 法大卒)감사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맡음.

▲金弘經(67년 法大卒·통상산업부 기획관리실장)=최근 통상산업부 차관보(1급)로 승진함.

▲張炳珠(68년 工大卒·대우 부 사장)=지난 12월 8일 단행된 그룹인사에서 사장으로 승진함.

▲金年泰(69년 文理大卒·SKM 전무)=지난 12월 2일 단행된 인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함.

▲鄭在龍(69년 法大卒·세무대학장)=지난 11월 26일 재정경

제원 기획관리실장에 선임됨.

▲金弘基(69년 商大卒·코오롱 유통 사장)=지난 12월 2일 단행된 그룹인사에서 코오롱상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김.

▲朴贊一(69년 醫大卒·모교 교수)=최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1차 대한방사선학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尹洪九(70년 工大卒·동양기계산업 사장)=지난 12월 3일 단행된 그룹인사에서 동양매직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徐京錫(71년 法大卒·LG투자 신탁 대표)=최근 단행된 그룹인사에서 LG종합금융 대표이사에 선임됨.

▲金聖德(71년 醫大卒·모교 교수)=최근 롯데월드호텔에서 열린 제42차 대한마취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에 선출됨.

▲洪錫炫(72년 工大卒·중앙일보 사장·本會 副會長)=지난 12월 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미스텐포드대 한국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 동창회장에 선임됨.

▲金寬植(75년 齒大卒·모교 교수)=지난 12월 9일 치과 의사협회 정기이사회에서 학술이사에 선임됨.

▲李泰遠(80년 醫大卒·원자력 병원 교수)=99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예정인 제1차 안종양학회 준비

위원에 선임됨.

▲孫基洛(9기 AMP·LG정밀 사장)=최근 단행된 그룹인사에서 LG 전략사업개발단 부회장으로 승진함.

▲宋在仁(36기 ACAD·LG정보 통신 대표)=최근 단행된 그룹인사에서 LG정밀 대표이사에 선임됨.

▲申東英(35기 AMP·기아전자

부사장)=최근 단행된 인사에서 기아전자 대표이사에 선임됨.

행사·출간

▲張潤錫(55년 醫大卒·울산대 교수)=지난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네팔에서 열린 국제연맹 이사회에 참석함.

▲尹鐸求(57년 醫大卒·대한암 예방학회장)=지난 11월 22일 모교 병원에서 제3회 가을 학술대회를 개최함.

▲林漢鍾(57년 醫大卒·고려대 명예교수·한국건강관리협회장)=지난 12월 19일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위십이지장궤양」을 주제로 건강관리 무료 강좌를 개최함.

▲白永勳(57년 大學院卒·한국 산업개발연구원장)=지난 11월 26일 팔레스호텔에서 「경제 위기시대 중소기업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 연찬회를 가짐.

▲李漢雄(58년 商大卒·신협중앙 회장·本會 副會長)=지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미국에서 열린 세계신협 협의회(WOCCU)에 참석함.

▲金鎮福(58년 醫大卒·모교 교수)=지난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제14차 亞太암학회에 참석함.

▲沈相弼(59년 文理大卒·홍익대 총장)=지난 12월 7일 롯데호텔에서 尹鍾燮(57년 文理大卒·한국에이츠학회 고문)·홍익대 명예교수의 논문집 발간 기념 리셉션을 개최함.

▲李翊燮(60년 文理大卒·모교 교수·국립국어연구원장)=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덕수궁에서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실제」, 「표준

어와 방언」 등을 주제로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함.

▲金基容(60년 醫大卒·울산의대 의무부총장)=최근 울산에서 지역개원의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짐.

▲張水榮(61년 工大卒·포항공대 총장)=지난 11월 23일 63빌딩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를 초청해 「21세기에 대비한 미래 과학도의 자세」란 주제로 특강함.

▲孫鳳鎬(61년 文理大卒·모교 교수)=지난 11월 25일 서울 창천교회에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10주년」 기념 행사를 가짐.

▲尹世榮(61년 法大卒·SBS 회장·本會 副會長)=지난 12월 3일 SBS 공개홀에서 제1회 민원봉사대상 시상식을 가짐.

▲白秉東(61년 音大卒·모교 교수)=최근 제2회 동아국제음악콩쿠르의 위촉을 받아, 2차에 선 과제곡중 하나인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사칼리아」를 작곡함.

▲沈載道(61년 醫大卒·성형외과 의원장)=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 성형외과학회에 참석함.

▲金奭圭(62년 文理大卒·외교안보연구원장)=지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외교안보연구

원에서 「한반도정세와 동북아안보」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함.

▲金新顯(62년 美大卒·훈민회 회원)=지난 12월 5일부터 9일까지 벨기에에서 열린 「International Art Fair 20C-LINE ART」전에 참가함.

▲洪性大(63년 文理大卒·학교법인 상산학원 이사장·冠岳會 理事)=지난 12월 4일 63빌딩에서 사회육성공로자 41명의 표창식을 가짐.

▲河權益(63년 醫大卒·삼성의료원장)=지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강남구에 거주하는 주부 35명을 대상으로 「가정도우미」교육을 실시함.

▲金明宰(64년 醫大卒·경희대 부속병원장)=지난 11월 22일 일본에서 열린 제27회 신장학회 동부학술대회에 참석, 「신장질환에 나타난 Iga 신장병증후군 현상의 개인적 치료사례」로 주제 발표함.

▲裴振善(64년 醫大卒·충남대 교수·대한의과학회 편찬위원장)=최근 「외과학용어집」의 편찬 작업을 완료, 발간 예정임.

▲柳志昭(64년 醫大卒·울산대 교수)=지난 11월 6일부터 14일까지 미국에서 열린 알레르기 학회에 참석함.

(12면에 계속)

상무에서 사장으로 고속승진

대우전자 全周範동문

지난 12월 8일 단행된 대우그룹 인사에서 상무에서 사장으로 전격 발탁된 全周範(75년 商大卒)동문.

현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우전자 유럽사업단 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全동문은 비록 최종 인수에는 실패했지만 대우의 프랑스 톰슨멀티미디어 인수협상의 실무주역이었다.

앞으로 가전사업 외에 21세기 유망사업인 모니터-평판 프라즈마디스플레이(PDP)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 『대우전자를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업체로



만들 계획』이라고 全동문은 밝혔다.

모교 경영학과를 졸업, 미국 일리노이대 MBA출신으로 대우전자의 수출파트에서 12년동안 근무해온 全동문은 영어, 일어, 독일어에도 능한 국제통으로 알려져 있다.(美)

(11면에 이어)



▲洪剛義(65년 醫大卒·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장)=최근 63빌딩 주제회의장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함.

▲文勝義(66년 文理大卒·기상청장)=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제30차 태풍위원회에 참석함.

▲金二永(66년 醫大卒·성균관대 교수)=지난 2년간 「주간한국」에 게재한 칼럼(왜 사는가)

을 모아 「세상을 바라본다」를 펴냄.

▲金宗善(66년 醫大卒·모교 교수)=지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일본 오사카대학에서 열린 「국제인공내이 세미나」에 참석함.

▲李昌信(67년 師大卒·숙명여대 통일문제연구소장)=지난 11월 6일 숙명여대에서 「남북한 여성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제33회 통일문제 세미나를 개최함.

▲文玉綸(67년 醫大卒·모교 교수·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지난 11월 22일 모교 보건대학원 강당에서 「21세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정책대토론

회」를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가짐.



▲孫菊任(68년 音大卒·숙명여대 음대학장)=최근 수능시험을 마친 고교생을 위한 청소년 음악회를 연속

3회에 걸쳐 개최함.

▲金鍵相(69년 醫大卒·중앙대의료원장)=지난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미국에서 열린 「북미 방사선학회」에 참석함.

▲金有瑩(69년 醫大卒·모교 교수·前대한알레르기학회 회장)=최근 대한알레르기학회 사무실을 이전하고 현판식을 가짐.(주소: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금포팔레스B/D 1705호 전화: 747-0528)



▲崔 洸(70년 商大卒·보건복지부 장관)=지난 11월 14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한국영양학회 창립 30주년」기념식 및 추계학술대회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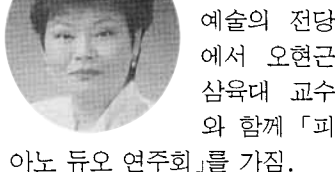
▲洪成和(70년 醫大卒·경희대 교수)=지난 12월 3일부터 6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간·담·췌장종양에 대한 심포지엄」에 참석함.



▲徐維憲(73년 醫大卒·모교 교수·강원대 학장)=지난 11월 21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전남경영자협회 조찬

연수회에서 「두뇌장수학」을 주제로 특강함.

▲李濟浩(73년 醫大卒·성균관대 교수·대한의학유전학회 편집위원장)=최근 대한의학유전학회지 영문판인 「Journal of Genetic Medicine」을 발간함.



▲金順花(74년 音大卒·숭의여대 전 교수)=지난 12월 29일 예술의 전당에서 오현근 삼육대 교수와 함께 「피아노 듀오 연주회」를 가짐.

▲崔東燮(76년 醫大卒·모교 교수)=지난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시드니에서 열린 제5차 기형학회에 참석, 「세계 최초로 개발한 스트레스 유전자 파괴 생쥐」란 주제로 논문을 발표함.



▲全美映(78년 音大卒·한국교원대 교수)=지난 12월 10일 문화일보홀에서 첼리스트인 夫君 이동우씨와

함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이중주의 밤」 콘서트를 가짐.

▲金裕祐(79년 醫大卒·울산대 교수)=최근 미국 심장학회에 참석, 논문을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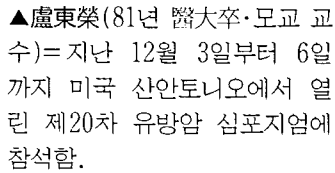
▲宋永煜(80년 醫大卒·모교 교수)=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류마티스학회에 참석함.

▲許大錫(80년 醫大卒·모교 교수)=지난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미국 피츠버그 암연구소에서 열린 「암의 유전자치료에 관한 국제학회」에 참석함.

▲金泰賢(81년 人文大卒·순천향대 교수)=최근 한국교육학회 정기총회에서 「생태학적 관점에 입각한 환경 교육과정」이란 주제로 논문을 발표함.



▲盧東榮(81년 醫大卒·모교 교수)=지난 12월 3일부터 6일까지 미국 산안토니오에서 열린 제20차 유방암 심포지엄에 참석함.



▲洪恩卿(83년 音大卒·명지대 교수)=지난 12월 28일 예술의 전당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가짐.

▲吳在煥(83년 醫大卒·중앙길병원장)=최근 대만에서 열린 아시아대장항문학회에 참석함.

▲朴素賢(84년 美大卒·관동대 강사)=지난 12월 24일부터 30일까지 관훈동 모인화랑에서 「푸른 열매, 꽃과 씨」 등의 작품으로 5번째 개인전을 가짐.



▲金賢會(84년 醫大卒·모교 교수)=최근 이탈리아에서 열린 유럽·한국 공동 전립선 비대증 역학연구회의에 참석함.

▲柳 濱(84년 醫大卒·울산대 교수)=최근 미국에서 열린 류마티스학회에 참석함.

▲姜爽熙(86년 音大卒·지휘자)=지난 12월 19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金聖惠(73년 音大卒·바이올린), 李知恩(93년 音大卒·첼로)동문과 함께 서울바로크합주단 제72회 정기연주회를 가짐.

▲宋萬成(86년 醫大卒·중앙길병원 안과장)=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 안과학회에 참석함.



▲白恩淑(87년 音大卒·계원예고 강사)=지난 12월 21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클홀에서 독주회를 갖고 베토벤, 쇼팽, 거슈윈 등의 작품

을 선보임.

▲孫 賢(90년 音大卒)=지난 11월 8일 호암아트홀에서 로시니, 그리그, 푸치니 등의 가곡과 아리아로 독창회를 가짐.

▲沈甲輔(3기 AMP·삼익물산 사장)=지난 11월 11일 부산 경성대에서 「국내외 환경변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방안」이란 주제로 특강함.



▲李太敎(4기 AMP·한성대 대학원장·한국부동산학회 회장)=지난 12월 4일 감정원에서 「개발이익환수의 문제점 및 재건축제도의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개최함.

▲申東浩(33기 AMP·한국PC통신 사장)=최근 충북 음성읍의 꽃동네를 방문해 장애인 이동차량 1대를 기증함.

(정리=李美連기자)



華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이홍석 군(92년 社會大卒)·김정연 양=1월 17일 15시30분.

*이은섭 군(90년 獸醫大卒)·장미영 양=1월 18일 11시.

*문병기 군(89년 師大卒)·구자숙 양=1월 18일 12시30분.

*손성진 군(88년 工大卒)·조은주 양=1월 18일 14시.

*이경한 군(91년 文理大卒)·이정희 양=2월 7일 14시.

*김정득 군(89년 師大卒)·이성희 양=2월 7일 15시30분.

*이규성 군(95년 師大卒)·이혜영 양=2월 8일 12시30분.

*노정석 군(93년 社會大卒)·심혜화 양=2월 14일 14시.

*강호철 군(93년 師大卒)·신수진 양=2월 14일 15시30분.

*이상영 군(95년 師大卒)·주은옥 양(92년 師大卒)=2월 15일 12시30분.

*백도현 군(92년 保大院卒)·박보영 양=2월 15일 14시.

*전진호 군(92년 美大卒)·김선진 양=2월 15일 15시30분.

「서울 튜티앙상블」 정기연주회

李玉姬·李昌洙·皮虎英·姜昌佑동문



앞줄 가운데李玉姬동문, 뒷줄 좌로부터 皮虎英·李昌洙동문, 한명 건너 姜昌佑동문.

지난 12월 8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클홀에서李玉姬(64년 音大卒)동문을 리더로 한 「서울튜티앙상블」이 제19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주회는 클라리넷 李昌洙(71년 音大卒), 바이올린 皮虎英(83년 音大卒), 비올라 姜昌佑(87년 大學院

卒)동문 등이 함께 참여해 모차르트, 베버, 브람스의 작품 등 우리에게 익숙한 명곡들을 연주했다.

3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공연에서 「서울튜티앙상블」은 감동적인 연주로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美)

슈베르트 탄생 2백돌 기념 공연서

피아니스트 李賢珣동문 대미 장식

올해는 슈베르트 탄생 2백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많이 개최되었다. 그 일환으로 시작된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 시리즈 연주회」에서 피아니스트인 李賢珣(82년 音大卒)동문이 마지막 대미를 장식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2월 15일 문화일보홀에서 개최된 이번 공연은 기존의 「주요 소나타 발췌 연주회」와 달리 미완성 소나타 D840을 포함한 전곡 연주회로서 올해 초인 2월 10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총 7회에 걸쳐 연주되었다.

李동문은 이번 연주회를 통해 슈베르트의 가곡의 왕



으로서 작곡가적 위치뿐 아니라, 피아노 솔로곡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 위대한 음악성을 재조명하였다. 특히 슈베르트의 모든 음악세계가 표현된 듯한 「Piano Sonata in B^b Major D.960」 2악장에서는 슬픔의 극치를 노래하기 위해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통찰력있는 소리로 관객을 압도했다. (美)

시카고 지부

신임 회장에 朴昌滿 동문 선출

시카고지부동창회(회장 蘇鎮文)는 지난 11월 29일 Radisson호텔에서 창립 15주년 기념 정기총회 및 연말파티를 개최했다.

1백50여명의 동문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朴昌滿(60년 工大卒) 수석부회장을 선출했으며 수석부회장에 具璟會(65년 醫大卒) 동문, 부회장에 李鐵周(61년 齒大入), 崔吉鏞(61년 文理大卒) 동문을 선임했다.

또한 文炳薰(51년 師大卒), 李龍洛(53년 工大卒), 李國鎮(55년 師大卒), 崔日柱(55년 工大卒), 徐承煥(61년 齒大卒) 동문을 고문으로 추대했으며 감사에 李漢植(53년 師大卒), 朴泳圭(61년 農大卒) 동문을 선임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同窓의 발자취를 집대성한 「총람 및 주소록」을 참석자 전원에게 배부했다.

뉴욕 지부

총동창회 분담금 1천불 출연

뉴욕지부동창회(회장 尹延玉)는 지난 12월 13일 힐튼호텔에서 장학기금 모금을 겸한 송년파티를 개최했다.

1백90여명의 동문 및 가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尹회장은 「21세기를 맞이하여 리더십을 가지고 더욱 더 힘차게 정진하자」고 말했다.

이어 재미동창회 吳仁錫회장, 朴鶴洙뉴욕총영사의 축사가 있

었으며 桂東輝동문의 재치있는 사회로 2부 여흥시간을 가졌다.

同窓는 이날 장학기금으로 1만5천달러를 모금했으며 지부 동창회 분담금으로 1천달러를 본회에 보내왔다.

한편 同窓는 최근 회장단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제3대 이사장에 李典九(64년 農大卒) 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아리조나 지부

신임 감사에 元成國 동문 선임

아리조나지부동창회(회장 朴陽世)는 최근 투산시 크리스토퍼 콜롬버스 공원에서 50여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야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칙을 개정, 신설된 감사에 元成國(69년 工大卒) 동문을 선출하고 총무에 韓晟敏(91년 農大卒) 동문, 회계에 朴起玄(91년 自然大卒) 동문을 선임했다. (變)

보건대학원

새 회장에 朴聖培 동문 추대



전임李회장이 「자랑스러운 동문」 표창을 했다.

保健大學院同窓會(회장 李喆玉)는 지난 12월 12일 모교 보건대학원 강당에서 동문 및 동문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겸한 동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李喆玉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고 어려운 시기에 참석해주신 여러 동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교 鄭慶均원장은 축사에서 「교직원 및 교수들과 함께 남은 임기동안 학교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모교 출신 특채 석·박사 제도에 동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97년도 회무 및 업무보고에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만장일치로 朴聖培(61년卒·前서울시



朴聖培회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동문을 신임 회장에 선출했다.

신임 차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최선을 다해 노장층과 젊은층이 함께 모이고 협력할 수 있도록 기별 회장 모임을 활성화하며, 모교와의 긴밀한 연계로 더욱 활발한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처음으로 제정된 「자랑스러운 동문」에 金學泳(60년卒), 朴南永(60년卒), 安商璟(60년卒), 全南昊(60년卒), 鄭文植(60년卒), 朴聖培(61년卒), 申鶴均(61년卒), 尹錫春(61년卒), 鄭英彩(61년卒), 李命和(62년卒) 동문을 선정, 표창했다.

다.

이날 행사에는 모교 鮮于仲皓총장을 비롯하여 모교 李長茂공대학장 등 동문 70여명이 참석, 로타리클럽 창립의 뜻깊은 자리를 자축했다.

그동안 창립총회 위원장직을 맡아 왔던 鄭八道(1기(주)흥인 사장) 동문을 만장일치로 초대 회장에 선출했으며, 鮮于仲皓총장과 李長茂학장을 명예회원으로 위촉했다.

로타리클럽은 국제적인 사회봉사 단체로서 특히 이번 AIP 로타리클럽의 경우 학장 및 각 동기회장의 추천을 통하여 각 기수별로 5명이하, 총 70여명의 정회원으로 구성키로 했다. (美)

「AIP로타리클럽」 창립

초대 회장에 鄭八道 동문



최고산업전략과정동창회(회장 崔在英)는 지난 11월 25일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AIP 로타리클럽 창립총회를 개최했

의과대학

3개 부문 「합춘의학상」 시상



좌로부터 李迎雨병원장, 李純炯학장, 具暎會·李鍾太·李鍾植동문, 李회장.

醫科大學同窓會(회장 李吉女)는 지난 12월 13일 모교 의대 제1교수회의실에서 동창회 임원 및 모교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鄭明熙부학장의 사회로 「합춘의학상」시상식을 개최했다.

李純炯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의례적으로 지급됐던 교수 연구비를 보다 효율적이고 영광스럽게 하기위해 합춘의학상으로 제정했다』며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상자들이 적은 상금으로나마 학계

발전에 기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具暎會(82년卒·경상대 교수)동문이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한 대퇴골부의 무혈성 골사범위 측정 방법」으로 연구업적부문, 李鍾太(71년卒·연세대 교수)동문이 「홀몸166 복합체로 간암치료 임상연구」로 연구계획 부문, 李鍾植(82년卒·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교수)동문이 「쥐를 모델로 한 파킨슨병 연구」로 해외연구부문을 수상했다.

이어서 李吉女회장은 축사에서 『수상식을 멋있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사회·경제 여건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조촐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수상자 및 여러 동문들의 양해를 구했다.

96년 2월에 결의된 「합춘의학상」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각 지회 및 동기회와 在美 학술위원회의 추천 공고를 통해 접수된 14명중 특별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 분야별로 1명씩 선정했다.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행사를 개최했다.

孔大植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사건들의 연속이었던 한 해를 마감하며 IMF등의 경제위기로 많은 동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자리에도 참석치 못해 아쉽다』며 『지금의 어려운 난관을 근검·절약과 재기의 정신으로 극복하려는 의미에서 매년 호텔에서 하던 송년행사를 저렴한 가격에 내실있게 동창회관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초청된 최준식(이화여대 한국학과)교수는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경영대학원

「송년의 밤」 통해 우의 다져



經營大學院同窓會(회장 孔大植)는 지난 12월 5일 동창회관

4층에서 金泓殖(71년卒·금북주·경주법주 대표)고문등 70여

상과대학

정기총회 위한 이사회 개최



商科大學同窓會(회장 張禮準)는 지난 12월 4일 상의클럽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회」준비를 위한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張禮準회장을 비롯한 임원 40여명이 참석하여, 97년도 결산 보고 및 98년

예산안을 심의하여 정기총회에 확정·결의하도록 했다.

또한 송년회 준비사항 점검을 통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알뜰하고 유익한 행사가 되도록 결의했다.

지리학과

「자랑스런 동문」 4명 시상

지리학과동창회(회장 康勝廉)는 최근 강남역 부근의 한 정식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감사원 사무총장에 취임한 李明海(63년卒)동문과 朴陽春(62년卒·경북대 사회과학대학장)동문, 李

長春(68년卒·한국관광정책학회 회장)동문, 金鍾基(72년卒·환경정책개발원장)동문에게 「자랑스런 동문」패를 증정했으며, 동문회를 위해 기금을 출연한 朴英漢(62년卒·모교 교수)동문 등 8명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美)

서울대 트리비아

Q10. 모교의 단과대학중 ①가장 많은 소속학과를 가진 단과대학과 ②단일학과로 형성된 단과대학은 어느 대학일까요?
A. ①인문대, 공대, 사대 ②간호대, 경영대, 수의대, 의대, 치대

법대 21회

졸업 30주년 기념 사은행사 가져



법대21동기회(회장 李康國)는 최근 모교「근대 법학 교육 100주년 기념관」에서 졸업 3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1부는 기념관, 2부는 교수회관에서 각각 나누어 개최된 이

날 행사에는 2백여명이 부부동반으로 참석, 30주년 기념을 자축했다.

또한 은사 6명을 초청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뜻으로 감사패와 기념품을 증정

했으며 모교에 대한 감사의 기념으로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어 2부에는 여흥시간을 마련, 서로의 친목과 화합을 다짐했다.



KT 관악회

임원 및 간사진을 새로 개편

한국통신 관악회(회장 皇甫漢)는 최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趙榮柱(78년 工大卒)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임원진을 새로 선출했다. 일반이사에 金相旭(74년 工大卒), 金聖中(76년 工大卒), 李尙浩(80년 經營大卒)동문을 선

출했으며 감사에 權行民(82년 經營大卒)동문, 간사장에 宋虎錫(88년 工大卒)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또한 98년에는 통신망을 이용한 상설연락방을 운영하기로 의결하고, 동문 총회를 정례화하여 매년 12월에 열기로 했다.

약대 11회

매년 12월 정기총회 갖기로



약대11동기회(회장 李甲烈)는 지난 12월 22일 르네상스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회 행사를 가졌다.

孔英碩(영신약국 대표)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동창회의 결산보고 및 감

사보고가 있었으며, 매년 11월에 있는 정기총회를 98년부터는 12월에 갖기로 협의했다. 이어진 만찬은 서로간의 우의와 돈독한 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신경외과

신임 회장에 崔德永동문 선출



의대 신경외과동창회(회장 趙榮熙)는 최근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1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 및 송년회의 밤 행사를 마쳤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崔德永(64년卒·중앙대 교수)동문(사

진)을 선출했다.

또한 醫局 出局 30주년 趙榮熙(62년卒·조선경외과의원장)동문과 20주년 高鶴鍾(72년卒·동서울병원 신경외과), 金賢執(72년卒·모교 교수), 朴慶秀(71년卒·오산당병원장), 申東輝(72년卒·신동휘신경외과

의원장)동문, 10주년 金英奎(82년卒·충북대 교수), 金鎧暎(93년 大學院卒·적십자병원 신경외과장), 洪承哲(82년卒·삼성의료원 신경외과장)동문에게 감사장과 기념품 증정이 있었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학과

「동문賞」 선정키로

교육학과동창회(회장 李相周)는 최근 정기총회를 서초동「한강」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는 동창회 업무보고 및 안건심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98년부터는 「자랑스런 교육학과 동문」을 선정, 감사패를 증정하기로 하였다.

조선해양공학과

인터넷홈페이지 개설

조선해양공학과동창회(회장 金兌燮)는 최근 무역회관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 洪錫胤(82년卒·모교 강사), 禹重九(84년卒·푸른윙 이사)동문을 간사에 선임했으며, 98년도 동창회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및 소식지 발간을 의결했다.

법대 17회

새 회장에 宋基方동문 선임



법대17동기회(회장 金昌根)는 최근 르네상스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宋基方(송기

방법률사무소 대표)동문을 선출했다.

신임 宋회장은 인사말에서 『동문 여러분의 도움과 충고를 부탁하며,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 더욱 유대를



식품공학과

송년회 행사 펼쳐

식품공학과동창회(회장 金錫信)는 최근 동창회관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4부로 나누어 진행된 이날 행사는 1부 저녁식사 및 동문과의 대화, 2부 개회식, 3부 단합의 장, 4

부는 폐회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행사비는 회비가 아닌 여유 있는 동문의 찬조금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는 잠시 잊고 지냈던 동문들의 우정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信)

모교소식

생활과학대학

맛별이 위한 「어린이집」 운영

생활과학대학(학장 李恩英)은 모교 대학원생(부부학생 또는 맛별이 대학원생)과 교직원 및 부부가 취업한 관악구 주민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고자 어린이집을 설립, 98년 3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18개월 이상 9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토요일 오후 2시)까지 질높은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연락처: 880-6802~3)

「교수 종합 연구동」 신축

2000년 12월 완공 예정

모교는 최근 현직교수와 명예교수의 공동연구 공간 및 통합된 휴게 공간을 확보, 원활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고로 신축될 「교수종합연구동」 착공식을 가졌다.

관악캠퍼스 체육관 앞 운동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2000년 12월에 완공될 이번 연구동은 국제교류센터

사무실, 체력단련실, 전산실, 휴게실, 교수연구실, 세미나실, 자료실 등을 갖추게 된다.

디자인과·공예과

「디자인학부」로 통합

모교는 98학년도부터 미래산업디자인과와 공예과를 디자인학부로, 공대 화학공학과와 공업화학과를 응용화학부로 통

합,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과학대의 소비자·아동가족학과군을 소비자·아동가족학부로 전환한다.

치대 韓秀夫교수

금니 모아 이웃 사랑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韓秀夫(67년 齒大卒)교수가 버려지는 치아 보철물에 함유된 금을 모아 3년간 6백만원의 마련, 어린이날과 추석, 성탄절 등 매년 3차례씩 고아 17명이 기거하는 수도원에 전달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韓교수가 보철물 재활용에 눈을 돌린 것은 94년 말. 치아 1개를 떼어 씌우는데 사용되는 보철물 5g중 순금이 4g을 차지하지만, 환자들은 돌려받은 보철물을 버리기 일쑤였다.

환자들이 韓교수의 설명을 들은 뒤 보철물 기증에 동의했으며 모교 병원 치주과 전공의 15명과 교수 5명도 동참하고 있다.

과달라하라大 등

학술교류협정 체결

모교(총장 鮮于仲皓)는 최근 멕시코 과달라하라대학교·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와 상호교육 및 학문적 교류관계를 강화하고 양교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학술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출판부

통신이용 주문판매

모교 출판부(부장 金容德)는 최근 「전화 사서함 도서판매」 서비스를 개설해 24시간 전화·통신을 이용한 주문판매를 하고 있다. 일반전화로 151을 누르고 이어서 전화사서함 8890을 눌러 필요한 서적을 주문하면 된다.

신임 미대학장에 夫守彦교수

吳麟錫인문학연구소장 취임

최근 미술대학장에 산업디자인과 夫守彦교수(사진)가 취임했다.

61년 미대를 졸업한 夫교수는 현재 산업디자인 전문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산업디자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인문학연구소장에 서양사학과 吳麟錫(59년 師大卒)교



수가 취임했다.

농생대 姜錫權교수

미생물이용 살충제 생산 착수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물학과 姜錫權(64년 農大卒)교수(사진)가 최근 살충능력이 있는 미생물 균주 5백88개를 분리, 대량 배양하는데 성공하여 미생물을 이용한 무공해 살충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품화될 예정이다.

미생물을 이용한 살충제는 독성물질이 남지 않고 해충의 내성을 높이지 않는 등 부작용이 없는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생물 살충제가 사용되고 있으나 원 제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姜교수는 우선 NT0423균



주를 이용한 살충제 생산에 착수하여 99년부터 상품화할 계획이다.

한편 姜교수는 분리해낸 5백88개 미생물 균주의 유전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했으며 균주를 외국에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金寅淑교수 등 13명

새 명예교수로 추대

모교는 최근 金寅淑교수 등 13명을 명예교수로 새로 추대했다. 이번에 추대된 명예교수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金寅淑(영어영문학), 金濟琬(물리학), 朴喜寅(지질과학),

金正年(경영학), 鄭日榮(건축학), 安泰玩(공업화학), 鄭昌柱(농공학), 李泰魯(사법학), 尹鎔柝(사회교육), 安承堯(식품영양학), 高昌舜(의학), 李符永(의학), 許程(보건학), (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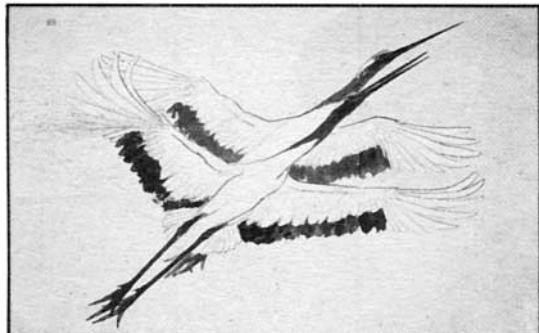
선배님 아세요?

—大學新聞「대학살롱」중에서—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호기심 많은 쌀롱자, 어느 날 점쟁이를 찾아가니 점괘 대신 납작하게 생긴 물건 하나 건네받는데, 쌀롱자 궁금해하며 한번 어루만지니 사진과 함께 이름과 생년월일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이에 놀란 쌀롱자, 다시한번 쓰다듬으니 이번에는 가족사항과 재산 정도까지 어렵듯이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쌀롱자, 경이로운 눈빛으로 『도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하고 물으니 점쟁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것이 바로 21세기형 족집게 전자주머니카드이니라』



인형이 있는 풍경

廉貞任(67년 文理大卒)수필가

요즘 나는 칠순이 넘은 어머니와 함께 인형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일 년간 내가 외국에 가 있는 동안 어머니도 나를 그리워하신 듯 인형 교실에 다니러 한다가 같이 다니자고 하신다.

작년에 두 딸들이 첫 아기를 낳아 나는 할머니로, 어머니는 증조할머니로 인생 승진을 하였다.

할머니로의 인생 승진

수강생이 여남은 명 되는 교실에는 어머니와 나를 빼고는 모두 내 딸 또래의 젊은 새댁들이다. 첫날에 검은 원피스를 입은 멋쟁이 강사는 우리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한다. 『이 클래스에 들어오시기 참 잘하셨습니다. 손자들에게 인기있는 할머니가 되시겠어요. 경로당에 가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나를 보고, 『할머니 노릇이 참 힘드신가 보죠. 전에는 참 고우시더니……』라고 말해서 기가

폭 죽었었는데, 이제는 「웬 경로당」인가?

이렇게 시작한 인형 교실이 이제 한 달이 되었다.

첫 작품으로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흰 앞치마를 두른 소녀를 만들었다. 먼저 흰 광목에 살색 물을 들여서 얼굴과 몸통을 재단한 다음 껌매고 솜을 넣어 몸통을 만든다. 그 다음에는 예쁜 옷감에다 옷을 재단하여 바느질을 하여 입히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만들자니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었다.

손으로 일일이 박음질을 하자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 조그만 아가씨도 입는 옷은 여러 가지라, 속바지에 원피스에 앞치마까지 만들어 입히려니 바느질품이 만만찮다. 민둥머리일때는 기괴한 느낌이 들었지만 털실로 머리를 만들어 붙이니 정말 아리파운 아가씨가 되었다.

그러나 눈을 그리기 전에는 하나의 형질일 뿐이다. 두 눈과 입을 그리고 나면 그녀는 표정이 생기고,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는 것 같다. 눈동자를 그릴 때에 나의 손은 사뭇 떨린다. 먼저 점을 두 개 찍는다. 그러나 점만으로는 인상이 너무 웅색해 보인다. 조금씩 눈동자를 키워가노라면, 어느 시점에 이르러 아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와 시선을 맞춘다.

나는 오래 전 나의 딸들에게 해준 것처럼 아기의 머리를 땅고 옷깃에는 레이스를 달아주었다. 발그레하게 불연지도 찍어서 경대 옆에 앉혀놓고 보니 참으로 사랑스럽다. 첫 솜씨라 서툰 구석도 많은데, 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이렇게 애착이 가는 것일까? 문득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놓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첫 솜씨라 서툴지만

예전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얼마나 만족해 하셨을까. 그래서 창세기에는 「보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이라.

어머니도 돋보기를 쓰고 새벽까지 만드셨다며 인형을 완성해오셨다. 어머니의 아기는 얼굴이 퉁퉁하고 오렌지색 원피스에 머리에 장미꽃까지 꽂았다. 강습시간이 끝나면 대개 어머니랑 점심식사를 같이 하고 시장을 보고 헤어진다.

요즘 들어 어머니가 참 아기 같다



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다. 자식들로부터 하찮은 것을 받고도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고, 한번 한 이야기도 자꾸 되풀이하신다. 어머니도 이제 늙으셨나 보다 하고 생각되면, 가슴속으로 찬바람이 스치고 지나간다.

외출에서 돌아오면 텅 빈 집 한구석에서 인형은 꿈꾸듯 앉아 있다. 아직 이름도 없는 이 소녀는 언제까지나 늙지 않을 것이다. 내가 육칠십이 되고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는 십오륙 세 가량의 아가씨로 남을 것이다.

아이들이 모두 떠난 빈 집에서 그녀의 분홍빛 원피스는 화사한 봄향기를 느끼게 한다. 깊은 밤 색색의 형질에다 바느질을 하노라면, 마음속으로 고요한 평화가 찾아온다. 젊음이 떠난 다음에 서야 얻은 이 평화를 한 땀 한 땀 소중하게 수놓아간다.

음악 역사의 新패러다임

金娟敬(89년 음대卒)숙명여대 강사

이 시기는 모든 음악이 종착하는 시기인가? 나올 수 있는 사상과 음악기법들은 모두 다 나온 것인가? 그렇다면 현대음악은 더 이상 발전할 여지가 없는 것인가? 언어와 비언어, 조성과 무조성, 대위와 화성, 아날로그와 디지털, 참으로 많은 요소들이 지금을 사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음악의 홍수에 빠져 버거운 해엄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현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일까?

소리없는 음악의 등장

서양의 과학철학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동양의 신비로운 정신세계를 차용하는 것처럼 소위 서양음악(많은 부분 문화적 상대성을 배제한 보편적 정서를 지닌 음악으로서의 서양음악)도 그 새로운 돌파구는 동양에서 찾게 되리라 본다.

그렇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음악이란 어떤 것일까? 본인이 생각하는 새로운 음악이란 「주체가 있으며 대상이 없는 음악」이다. 그리고 따라서 「대상이 없으므로 감각작용이 필요없는 음악」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주체가 있지만 대상이 없는 음악」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주체가 외계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직접 만들어 내는 음악인 것이다.

공간속의 파동에 고막이 반응하는 메카니즘을 가진 음악이 아니라 인간 내부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음악(물론 어느 정도 개인의 의지가 필요하겠지)이다. 소위 「소리없는 음악」, 「들리지 않는 음악」 혹은 「무의 음악」이라 할 수 있는데 음악철학에서 이야기되는 천상의 음악(musica mundana)과도 흡사한 면이 있다. 이러한 음악이 새로이 등장하리라 생각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뮤젠트로피(musentropy)」라

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뮤젠트로피란 뮤직(music)과 엔트로피(entropy)의 합성어이다. 여기서 엔트로피라는 것은 역학에서 나오는 용어로 질서가 없는 정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뮤직 엔트로피 즉 뮤젠트로피는 음악의 무질서도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음악의 발생부터 시작하여 음악이 발전함에 따라 증가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주역과 컴퓨터의 대응

그런데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면 언젠가는 폭발(박빙)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금 새로운 시작으로 가게 되는데 이는 마치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묻혀 싹이 트고 잎이 나고 꽃을 피우며 다시 새로운 씨앗을 남기는 이치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만약 지금이 그러한 흐드러지게 핀 꽃의 시기라면 곧이어 새로운 씨앗에게 그 생명을 이양하는 시기도 도래할텐데 그 씨앗이란 아무것도 없는, 소리가 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음악에서 이러한 새로운 음악으로 바통이 넘겨지는 그때는 언제이며 어디서 일어날까? 현대 음악가들은 현재 자신들의 최첨단 음악을



연주함에 있어 컴퓨터의 도움을 받은 전자음향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화 되어있는 전자음향이란 것을 분석해보면 0과 1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이 8개 모여 정보를 구성하는 최소단위인 바이트를 이룬다. 그런데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현대과학철학이 만들어낸 물질세계의 총아, 컴퓨터의 본질이 이처럼 0과 1 그리고 8비트라는 사실은 현대음악이 동양의 정신세계로 넘어오는 단서를 제공하는 지도 모르겠다.

동양 정신세계의 극치를 이루는 주역에서는 음과 양 그리고 8괘가 그 핵심 요소다. 그리고 이것은 컴퓨터의 핵심 요소와 절묘히 대응되고 있다. 만약 이 대응관계를 밝혀내게 된다면 그순간 그 장소에서 새로운 사조는 출발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연극연출가 林振澤동문



신구전문대 徐東和교수

「나는 빠리의…」 「춘향전」 맡아

“신명나는 무대를 만들고 싶다”



李和源·林동문(右)

「열린 사회를 위한 무대」를 지향하는 관소리꾼이자 창작 마당극 및 전문 무대 연출가로서 동·서양을 넘나드는 재주꾼 林振澤(75년 文理大卒)동문.

대학로 아리랑 소극장에서 30년의 우정으로 만든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를 공연중인 林동문은 새로운 문화운동을 실천하는 연극이론가이자 민족예술운동 제1세대 연출가로서 「97 세계 마당극 큰잔치」의 최고 인기작인 창작 마당극 「밥」을 비롯하여 제5회 민족예술상을 수상한 창작관소리 「오월 광주」와 「똥바다」 등의 우리 것은 물론 서양식 무대 연출까지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왔다.

특히 이번 무대는 원작자 및 주연배우 모두가 서로에게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져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69년 문리대 외교학과 동기이자 경기고 선배인 洪世和(77년 文理大卒)동문이 원작을, 이화여대 재학시절부터 함께 연극을 해온 李和源(83년 大學院卒·상명대 교수)동문이 여주인공을 맡아 당시 문리대 연극반 연습실로 사용됐던 바로 그 곳에서 다시 모여 공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와 이념보다는 낯선 이국 땅에서 택시 운전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한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 부각시키고자 했습니다. 世和형이 그토록 부러워하던 톨레랑스(Tolérance) 즉 다른 사상과 생각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관용의 철학을 지키고 싶었다」고 林동문은 연출의 변을 밝혔다.

뮤지컬을 가미한 서사극으로 꾸며진 이번 무대는 파리에서 유일한 한국출신 택시운전사가 된 洪동문의 현재와 과거 등이 관소리적 랩과 상송, 파리 거리를 담은 영상과 함께 펼쳐진다. 지난 95년 출판 당시 국내에서만 30만부 이상이 팔린 원작은 만만치 않은 제작비 때문에 영화화되지는 못했지만 올 11월 원작의 일본 출판기념회를 적극 추진한 林동문에 의해 연극으로 새롭게 탄생된 것이다.

1월 25일까지 계속되는 이 공연 이외에 국립극장 후원으로 6시간 짜리 완관창극 무대인 「춘향전」의 연출을 맡아 지난 연말을 누구보다도 바쁘게 지낸 林동문은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기 어렵게 가장 아쉽다고 한다. 동문끼리 만나 가정을 이룬 林동문은 부인 李愛京(72년 師大卒·동덕여대 교수)동문과 처형 李愛珠(69년 師大卒·모교 교수)동문을 비롯하여 슬하에 외동딸인 예술양을 두고 있다.

『모두가 문학·미술·음악 등을 포함한 종합예술로서 관소리가 연극이고 그것이 곧 마당극입니다. 젊은 시절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었던 독재정권하에서 사회 운동에 많이 참여하다보니 예술적인 작품활동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결코 후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정말 신명나는 무대를 만들며 살고 싶다』며 소박한 미래를 꿈꾸고 있는 林동문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이 시대의 진정한 광대가 아닐까.

(美)

100% 순수창작 비행기 제작

“직접 몰고 전시회에 참가할 터”

96년 8월에 이어 두 번째 100% 순수창작 비행기를 제작한 徐東和(79년 美大卒)동문은 중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비행기 제작에 대한 오랜 소망을 30여년만에 이뤘다.

재료와 자료, 전례가 없었던 초기 라이트형제의 도전정신과 모험정신을 높이 산다는 徐동문은 모교 입학당시 원했던 학교와 학과에 합격한 축하의미로 자신의 화구들을 조립, 모형비행기를 제작했다. 캠퍼스는 날개로 파레트는 꼬리날개 부분 등으로 사용, 화구를 조립해도 비행물체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다고.

모교 재학시절부터 첨단 기기에 관심이 많아 보트 및 요트, 태양열 자동차 등을 만들었던 徐동문은 비행기 제작에 대해서 오케스트라처럼 종합적인 조화가 필요하며, 재료에 대한 해박한 정보와 자료 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능만 가지고는 어렵고 시간과 충분한 노력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창작 비행기는 처음 작품을 보완한, 우수한 성능을 가진 비행기가 목표였으나 이번에도 미흡한 점이 발견돼 차후 다시 보완하여 제작할 예정이라는 徐동문은 제작 당시 비행기에 사용되는 부품이 민간인으로는 구하기 어려워 상당히 애를 먹고, 자작 비행기를

만든다고 이상한 사람 취급까지 당한 적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徐동문의 이번 작품명은 「사막의 잔치」. 이는 중요한 규격 볼트업체와 특수부품들이 국내엔 거의 없는 사막과 같은 현 실정과 徐동문 자신이 어려서부터 생각한 꿈과 목표를 함께 함축해서 작품명을 지었다고.

徐동문은 『요즈음 학생들은 도전의식이 다소 결여돼 있으며, 주관적 목표와 진취적 사고를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열린 세계를 향해 도약해야 한다』며 이젠 학교에서도 교과서적인 내용보다는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진정한 산(生)아카데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徐동문은 앞으로 비행기 뿐만 아니라 첨단과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예정이며, 외부에 동참의미를 전달할 뜻으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장거리 원정계획으로 미국에서 매년 한번씩 열리는 세계 비행기 전시회에 자신의 자작비행기를 몰고 참여할 계획을 추진중이며, 이는 아직 한번도 자신이 만든 순수비행기를 타고 전시회에 참가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徐동문은 현재 신구전문대 공예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대공간회(모교 조소과 출신의 조각가 모임)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 (信)





新刊

■ 조국이 번영하여 빛나는 길

—金許男 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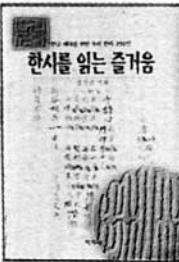


본 회 부회장인 金許男 (52년 法大卒·국회의원) 동문이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하는 저서를 발간했다.

이 책에서 金동문은 기능과 능률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오늘의 교육을 비판하면서 먼저 교육의 이념과 가치관의 확립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동방 애드컴刊·값 5,000원)

■ 한시를 읽는 즐거움

—鄭震權 譯解



수필가이자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인 鄭震權 (58년 師大卒) 동문이 崔致遠의 「秋夜雨中」 등 삼국

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한시 2백50편을 새로 번역해 놓았다.

각 편마다 번역시, 원문, 평설, 직역(주석)으로 짜여져 있어 독자들에게 향기로운 고전을 맛보는 의외의 즐거움을 주리라 본다. (학지사刊·값 12,000원)

■ 마당에는 때로 은빛 꽃이 핀다

—鄭鎮弘 著



종교학자인 鄭鎮弘 (60년 文理大卒·모교 교수) 동문이 회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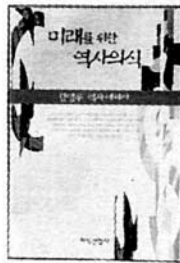
맞아 첫 시집을 펴냈다.

70여편의 시를 집, 꿈, 소묘, 자화상, 둘 이야기, 귀향 등 여섯 갈래의 연작으로 구성했다.

또한 이번 시집에 덧붙인 산문 「귀향의 언어」를 통해 鄭동문의 시에 대한 사랑, 고향에 대한 그리움 등을 엿볼 수 있다. (도서출판 강간·값 5,000원)

■ 미래를 위한 역사의식

—韓永愚 著



모교 국사학과 교수인 韓永愚 (62년 文理大卒) 동문이 현실의

어둠과 혼돈을 뚫어보는 역사의 눈, 미래의 지평을 여는 역사의 힘이 느껴지는 글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韓동문은 이 책속에 한국인의 정체성과 바람직한 역사의식, 위대한 역사경영자 등에 관한 짧고 쉬운 에세이 30여편을 담았다. (지식산업사刊·값 8,000원)

公演

■ 申敏定피아노독주회

—1월 19일 예술의 전당

계원예고 강사로 재직중인 피아니스트 申敏定 (89년 音大卒) 동문이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독주회를 열고 베토

벤, 바르토크, 리스트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 李佳永첼로독주회

—1월 23일 예술의 전당

군산대 및 제주관광전문대에서 강의하고 있는 첼리스트 李佳永 (93년 音大卒) 동문이 예술의 전당에서 슈만, 바흐, 마르티누, 라흐마니노프 등의 작품으로 독주회를 갖는다.

■ 皮虎英바이올린독주회

—1월 30일 예술의 전당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인 皮虎英 (83년 音大卒·성신여대 교수) 동문이 바이올린 독주회를 갖는다.

이날 공연에서 비에나아프스키, 브람스, 사라사테, 파가니니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정리=安興燮기자)

12월호를 읽고

동창회 참여기회

더욱 늘려주기를...



직장이나 전문 분야는 군 질성이 있으나 동창회는 비군 질적인 동문들이 대화를 나누고 여흥을

즐기며 같이 호흡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제 도덕적이고 소신있는 사회생활과 기여를 해야 할 때가 도래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동창회는 더욱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도록 문과 기회를 확 열어 놓고 그들에게 무엇을 되돌려 줄 수 있나를 찾아야 한다. 최소한 즐기는 인생관을 심어주고 새로운 봉사 및 협력 정신, 正道와 도덕관, 근면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鄭用昇 (62년 文理大卒) 한국교원대 교수

동창회와 동문간의

양방향 교류가 되도록



동창회보는 졸업생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연결수단이 되며, 대

동문 개개인을 이어 주는 탱줄과도 같은 존재이다. 탱줄이 어머니와 태아사이에서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양쪽 방향 교류이듯이, 동창회와 개개인 사이의 교류도 양방향이면 더욱 좋겠다.

회원으로서의 의무도 해야 되겠지만 회원에게 주는 기쁨도 있어야 되겠다. 포켓용 DIARY 발송도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좋은 시도로 생각된다. 동맥, 정맥이 양방향으로 잘 통해야 건강한 동창회가 될 것이다. 朴陽義 (76년 醫大卒) 경찰병원 교수

동문기고

오차율 0%의 극한을 추구하며

朴武益 (70년 經大院卒) 한국갤럽조사연구소장



1997년 12월 18일 제15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MBC-TV는 한국갤럽의 선거예측을 발표했다.

1, 2위의 득표율 차이는 1.0%. 그야말로 박빙이었다. 표본오차는 $\pm 2.0\%$ 로 얼마든지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것이므로 통계적으로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지만, 만일 바뀐다면 엄청난 파문이 일어난다.

박빙의 선거예측

파나게 싸워온 각 후보진영의 명암이 엇갈리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의 여론조사』는 엉터리라는 놀림을 묵묵히 감내할 수 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MBC-TV는 오후 6시

선거예측방송을 한다고 여러 차례 예고를 내보낸 터였다.

보다 정확한 선거예측을 위해 투표일 7일 전부터 매일 추적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1, 2위 후보자의 지지율이 1%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했다. 어떻게 1위를 정확히 맞출 것인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또한 투표 4일전 필자가 MBC 경영층에게 『비록 1, 2위 표차가 0.5% 일지라도 순위는 결코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친 것도 후회되었다. 너무 무지한 오만이 아닌가! 사회과학 방법론상 이런 호언이 가당한 일인가!

6시 선거예측을 하던 KBS와 SBS는 이를 취소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너무 박빙이고 예측불가능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MBC는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6시에 예측보도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해 왔다. 한국갤럽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결정이었기에 더욱 가슴 졸이는 일이었다.

그래 최선을 다 해보자. 조사의 각 단계마다 생길 수 있는 오차를 0%로 만들어보자. 우리 팀원들의 눈빛은 처절하기까지 했다.

표본오차도 문제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40%가 넘었다. 이들은 실제로 누구를 찍을 것인가? 그리고 응답하는 사람은 과연 속마음을 솔직히 말해 줄 것인가? 면접원은 성실한가?... 거짓응답 경

향이 강한 00지역 사람들의 응답처리 방안은?

MBC에 발표된 우리의 선거예측은 「김대중」 39.9%, 「이회창」 38.9%, 「이인제」 19.7% 기타후보 1.5%였다. 실제결과는 「김대중」 40.3%, 「이회창」 38.7%, 「이인제」 19.2%로 평균오차 0.4%를 기록, 세계 선거 예측 사상 유래가 드문 완벽한 계임을 한 셈이다. 먼저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뻐했다.

완벽한 게임판

MBC-TV를 통해 발표된 「여론조사 TV쇼」는 한국·한국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선물을 드릴 수 있었기에.

첫째, 한국의 조사수준이 구미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음을 증명한 일.

둘째, 이번 선거과정의 공명성이 증명되어 재검표 등 선거 후유증을 없애고 낙선자의 깨끗한 승복을 이끌어낸 일.

셋째,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합리적으로 만들고 사회를 건전하게 만드는데 보탬을 준 일.

넷째, 우리기업 경영의 의사결정과정의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보탬이 되리라는 기대, 특히 주먹구구식의 경영 의사결정이 이제 통하지 않고 마케팅조사 즉, 사실확인 (Fact-finding)이라는 바탕 위에 경영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IMF시대에 살아남는 지혜임을 경영자에게 알려드린 일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회비납부 솔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회비를 내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회비는 동창회 운영과 모교지원 활동에 밑거름이 됩니다.

회보를 받아보시는 국내외 동문중 아직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理事:97년 10월 14일~12월 4일·一般:97년 10월 14일~12월 2일〉

이 사

◇社會科學大學

▲이영조⁷⁷경희대 교수
▲장원석⁷⁸제주대 교수
▲제정구⁸⁰국회의원

◇家政大學

▲최정신⁷¹성심교정 교수

◇看護大學

▲박정희⁷⁸마산간전 교수

◇經營大學

▲김선구⁷⁷캐나다로알지점
▲정찬우⁷⁶공인회계사

◇工科大學

▲강대욱⁶⁹LG전선 연구 이사
▲구재완⁵⁵선경건설상임고문
▲권기정⁶⁷새한 전무
▲권중두⁵⁸전신동아건설대표
▲김 철⁵⁶석진상호신금대표
▲김경식⁴⁶법률사무소 소장
▲김광렬⁵⁴우성전기공업고문
▲김광식⁵⁹전석탄공사 소장
▲김교성⁵⁵대한특수가스사장
▲김동철⁵⁸우성타이어대표
▲김연수⁵⁸한국투자증권고문
▲김영환⁷⁷홍익대 교수
▲김유도⁶²천일하이텍대표
▲김유채⁶⁷산업기술대총장
▲김일진⁵⁸영남대 교수
▲김재탁⁶¹일산강철 대표
▲김정순⁷⁹전신한기업 이사
▲김주환⁶¹내경ENG 대표
▲김찬욱⁶⁹이수화학 부회장
▲김천욱⁵⁹연세대 교수
▲김환길⁵⁴(주)중앙기술
▲노해규⁵⁷건화ENG 회장
▲목영일⁶⁰아주대 교수
▲박성규⁶³하나그룹 대표
▲박승엽⁵⁰한영전자 회장
▲박승준⁶⁰한국외대재단전무
▲박재암⁶⁴서울도시가스이사
▲서민석⁶⁶동일방직 회장
▲서용부⁶⁵경방 상무
▲손동준⁶⁶동일기연 대표
▲손진영⁷⁵조인ENG 대표
▲신중록⁷⁰대양산업 이사
▲신현주⁶⁶LG ENG 대표
▲심세진⁶⁵대한정밀화학대표

▲심창생⁶⁴한국전력공사전무
▲안수길⁵⁷前서울대 교수
▲안호준⁶⁴인홍물산 회장
▲양홍석⁴⁷서울대 명예교수
▲오동규⁷⁰동양화학 연구원
▲오인석⁶²법률사무소 고문
▲우무상⁶⁵세한ENG 부사장
▲유재소⁶⁵도화기공 부회장
▲유재운⁶¹라이트모드 사장
▲이대원⁶⁶前국제전선 고문
▲이선우⁵⁹호남석유화학 전무
▲이시우⁷¹페트로코리아 대표
▲이익조⁶⁶에이원 대표
▲이재명⁶⁷前한국건설기술원
▲이종대⁶³벽산강재 사장
▲이진주⁶³생산기술원 원장
▲이찬진⁶⁹국회의원
▲이충수⁵⁸정진INT 대표
▲이행부⁶⁶대통령밀 대표
▲이흥원⁷⁰삼성전자 상무
▲장기욱⁶⁸前한전기술 대표
▲정경진⁶⁷종로학원장
▲정순봉⁶⁰기술사사무소대표
▲제해현⁶⁹삼양중기 이사
▲조규완⁵⁵삼부산업 사장
▲조복제⁶⁴동성교역 대표
▲주 백⁵⁹학송산업 대표
▲최만형⁶⁶동방전자 대표
▲한건우⁵⁹(주)한서
▲현봉섭⁵⁴한국과기원
▲황규승⁶⁸고려대 교수
▲황대석⁶⁵오보ENG 사장
▲황만세⁷³미네르바 대표
▲황선근⁷⁰인하대 교무처장
▲황청정⁶³하나그룹 소장

◇農科大學

▲김상호⁶²대풍상사 대표
▲김장호⁷⁰럭키건설 대표
▲김창수⁶⁴성보화학 상무
▲김철수⁶⁷상주산업대 총장
▲손원교⁷⁰강원대 교수
▲신한풍⁶³고려대 교수
▲심재철⁶³니찌맨 서울지점
▲오봉국⁶²서울대 명예교수
▲유일웅⁷¹중앙중요 이사
▲윤대섭⁵⁵성보산업 부회장
▲이기명⁶⁷경북대 교수
▲이상무⁷¹농림부 기획실장
▲이정영⁵⁶前서한화학부사장
▲이현목⁶⁸농림부 감사관
▲임승룡⁶⁰배화여고 교장
▲장정식⁶⁵서울 강북구청장
▲정영식⁶⁷한불상사 대표

▲조성진⁴⁸충북대 명예교수

◇文理科大學

▲강경식⁶⁶서울고속버스전무
▲구범모⁵⁶정신문화원 교수
▲김순모⁵⁶前우성실업 대표
▲김용달⁶²한일투자신탁감사
▲김용언⁶⁵동서식품 전무
▲김우현⁶¹전기아경제원
▲김운태⁴⁸서울대 명예교수
▲김진현⁵⁸서울시립대 총장
▲김한웅⁵⁹금용연수원부원장
▲김홍철⁵⁷한양대 교수
▲노미혜⁶⁶여성개발원부원장
▲노재식⁵⁷부산대 초빙교수
▲박봉식⁵⁵前서울대 총장
▲박용철⁶⁶미래정경원 소장
▲성병국⁶¹중앙일보 주필
▲손봉호⁶¹서울대 교수
▲신명범⁵¹
▲신학용⁷⁵법무사
▲엄준걸⁶⁶대국건설 회장
▲윤명중⁵⁷한결문화사 회장
▲윤병태⁶⁰영남대 교수
▲이남수⁵⁹동덕여고 교감
▲이만렬⁶³숙명여대 교수
▲이성덕⁶⁰동아대 교수
▲이영훈⁶⁸한국사회학 연구 소장
▲이종하⁷²KBS시설관리사업
▲정 훈⁶⁰대일금속 대표
▲채희원⁷⁴부산대 교수
▲최희조⁷¹동아일보 경제부장
▲하두봉⁵⁶광주과기원장
▲하명희⁶⁴연합통신 전주지사
▲홍남표⁷³한국국토개발 이사
▲홍순호⁶¹이화여대 교수
▲홍치모⁵⁶충신대 교수

◇美術大學

▲곽원모⁶⁰중앙대 교수
▲권순형⁵⁵서울대 명예교수
▲노재우⁵⁵인천교대명예교수
▲백병기⁵⁷어린이회관 이사
▲유종민⁶⁴중앙대 교수
▲이용환⁶⁴前전국대명예교수
▲정택영⁶⁰서울대 교수
▲진진숙⁶⁶한양대 교수

◇法科大學

▲강상원⁵⁵前전북도지사
▲강영훈⁶⁹해군사관학교교수
▲고대은⁶²리인컴 인터내셔널
▲고문승⁶³제주전문대 교수
▲권영훈⁵⁹변호사

▲권혁채⁶⁴한국중공업 고문
▲김건홍⁷⁵서울지법 부장판사
▲김기섭⁶⁸변호사
▲김기인⁶²한국조세 연구 위원
▲김달식⁵⁷변호사
▲김대권⁷⁴변호사
▲김동원⁶⁶前대우투금 감사
▲김명진⁷⁸사법연수원 교수
▲김문환⁶⁹국민대 법과대학장
▲김봉수⁷⁰한국산업증권이사
▲김정기⁶⁶변호사
▲김정렬⁵⁸한국능률협회부회장
▲김학원⁷⁰국회의원
▲문상익⁵⁴변호사
▲문인구⁶⁰문인구법률사무소
▲민수홍⁵⁶뉴스위크 편집고문
▲박선우⁶⁴장훈학원 이사장
▲박정규⁶¹변호사
▲박정서⁶¹변호사
▲박한철⁷³헌법재판소
▲변 옥⁶¹중앙특송 대표
▲소진철⁵³
▲손동원⁵⁷홍국상사 고문
▲손지열⁶⁹서울지법 판사
▲송민호⁵⁹대전대 교수
▲신규태⁶⁰서울리스 회장
▲안광구⁶⁴한국표준협회장
▲안민환⁶²유창공영 부사장
▲안병훈⁶¹조선일보 편집인
▲양대치⁶⁵대일물산 대표
▲양창덕⁵²前DIC 대표
▲여대도⁶³의환은행 지점장
▲여정구⁷⁸변호사
▲원의종⁵⁹계성제지 자금담당
▲유종해⁵⁹前연세대 교수
▲윤보목⁷⁰인하대 교수
▲윤세리⁷⁶변호사
▲윤준원⁷¹고려통운 대표
▲이봉래⁶⁴한전종합조정실장
▲이상돈⁷⁴중앙대 교수
▲이종선⁶⁰대구고검 이사관
▲이창수⁵⁷새마을중앙연수원
▲이한구⁶¹변호사
▲이한동⁵⁸국회의원
▲이흥구⁶²동원창업투자
▲이환규⁶⁰국민신용 부사장
▲장만호⁷⁸대한투신 관리부장
▲장수길⁶⁴변호사
▲전춘환⁶²변호사
▲정 열⁶²기술금융 부사장
▲정경용⁶⁹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정경택⁷⁴변호사
▲정대권⁷⁹변호사
▲정재형⁶³조흥상호신금상무

▲정형근⁶⁸국회의원
▲조동평⁶⁵한국전력공사
▲조수현⁷⁴창원지법부장판사
▲조준희⁶⁰변호사
▲지용순⁶⁴조흥파이낸스감사
▲진영배⁶¹태영레저 대표
▲진의장⁶⁸세무법인태정 회장
▲최덕기⁶¹한국관세 협 이사장
▲최동규⁶¹수자원공사 이사장
▲최상기⁶⁸삼익주택 사장
▲하 옥⁷⁵통일원 과장
▲한덕수⁵⁹고려진생산업대표
▲허규철⁶⁷정림감정소장
▲홍성우⁶¹변호사
▲홍정희⁶¹경찰공제회 부장
▲황규정⁶²변호사

◇師範大學

▲강상철⁵⁷충남대 교수
▲강태중⁶⁰前사당중학교장
▲김동균⁷⁰내셔널프라스틱
▲김석현⁶⁰한양대 교수
▲김찬삼⁶⁰前경희대교수
▲김충연⁶³서울시 장학사
▲문창완⁶⁸창성기업 대표
▲박병도⁶⁶하순온천 대표
▲박승재⁵⁹서울대 교수
▲심명호⁵⁸서울대 교수
▲오민수⁶⁶한국자원 연구 부장
▲유건집⁶⁰우천산업 상무
▲이종면⁶⁰서울과학교육원장
▲이종선⁶⁴국민대 교수
▲이춘원⁶¹중앙교육연수원
▲임창규⁶⁰상명대부속여고
▲조길준⁶⁰서울과학고교장
▲조태경⁶⁵공주사대 교수
▲하봉욱⁶⁰장훈중학교 교장

◇商科大學

▲갈정웅⁷²대림정보통신부사장
▲강보원⁶⁴前한외통금부사장
▲고학모⁶⁰대주무역 사장
▲구정환⁶⁰공인회계사
▲권영진⁶⁴신한은행 감사
▲권태인⁵⁴前종합기술공사
▲김기석⁶³오양수산 대표
▲김민식⁶⁴대구문화방송 사장
▲김부익⁷³부익양행 대표
▲김성두⁶²세방전지 대표
▲김영근⁶⁸조흥은행 감사부
▲김영대⁶⁷한국은행 이사
▲김용요⁵⁹前서울신탁銀전무
▲김정구⁷⁶대한투신 차장

▲김정철⑦④금호렌트가 부장
▲김정태⑦④동원증권 사장
▲김종근⑥⑥비즈니스다이나믹
▲김희중⑦④경향신문광고본부
▲박광철⑥②썬워드 대표이사
▲박길부⑥③에하출판사 대표
▲박병렬⑥⑦신영증권 부회장
▲박재운⑥③韓銀금융통화위원
▲박창만⑦④개발리스부사장
▲박해룡⑥③제일은행 이사
▲서 행⑥④가산상사 대표
▲소재수⑥④향진기획 대표
▲엄재을⑥④前동산식품 회장
▲원호출⑥③前대구투금회장
▲이광표⑥⑤영한상사 대표
▲이상철⑥⑥국민카드 회장
▲이상학⑥③제일은행 지점장
▲이상호⑥①한진건설 전무
▲임재표⑥②하남철강 대표
▲전영호⑥①안양방송 대표
▲정재택⑥②신구전문대 교수
▲정찬준⑥⑤대운상운 대표
▲채길수⑥⑦동방회계건설링
▲최민환⑥②동남은행 전무이사
▲하기주⑥⑤한인기획 사장
▲한수길⑥⑥롯데제과 부사장

◇獸醫科大學

▲계봉구⑥①동원신약 대표
▲윤무중⑥⑥한국아쿠르트유업
▲이용우⑥⑦국립보건원 교수
▲조상래⑥⑦연세의대 부교수

◇藥學大學

▲권창호⑥①경희대 교수
▲김길수⑥⑤이화여대약대학장
▲김낙두⑥⑦서울대 교수
▲김동춘⑥③前대원제약부회장
▲김영남⑥⑥원주기독병원약국
▲김용전⑥②은행약국 약사
▲김원석⑥⑥두만약국 약사
▲김종수⑥③김부로스상사사장
▲김태욱⑥⑦현대백화점 약사
▲문승만⑥⑥제일약국 약사
▲박용문⑥③자모약국 약사
▲서정진⑥③수성약품 대표
▲신철교⑥⑦아주대병원약제과
▲엄기정⑥⑥유한에스피 상무
▲임경택⑥⑦부산동아대 교수
▲조철원⑥③신강약국 약사
▲홍우일⑥⑤유한양행 전무

◇音樂大學

▲박인수⑥③서울대 교수

◇醫科大學

▲구성대⑥⑥군산시 보건소장
▲김곤식⑥⑤성보의원 원장
▲김동순⑥③서울중앙병원과장
▲김삼현⑥⑦천안대병원과장
▲김상림⑥⑤김상림정형외과
▲김성권⑥④서울대 교수
▲김수태⑥⑤서울대 교수
▲김승원⑥⑤서울대 교수
▲김창협⑥③소아과의원장
▲노수환⑥⑤내과의원장
▲문태준⑥⑤보건의료정책연구
▲박봉륜⑥⑤범일 정형외과
▲박영원⑥⑦이비인후과의원
▲박영희⑥⑦부산내과의원장
▲박태동⑥⑦산부인과의원장
▲방장훈⑥⑦산부인과의원장

▲변종화⑥⑤외과의원장
▲송익훈⑥④한국건강관리협회
▲신동휘⑥⑦신경외과의원장
▲신용찬⑥⑥시민병원장
▲안창일⑥⑦동수원병원소아과
▲유경상⑥⑦대화외과의원장
▲유형래⑥⑥성야병원정형외과
▲윤근철⑥⑦성형외과의원장
▲윤재일⑥⑦서울대병원 피부과
▲이규환⑥⑥안양신경정신병원
▲이병훈⑥⑥소아과의원장
▲이상완⑥①정형외과의원장
▲이영철⑥⑤외과의원장
▲이의돈⑥⑦원자력병원
▲이정길⑥⑦소아과의원장
▲조병규⑥⑦서울대 교수
▲한홍무⑥②동의의대정신과장
▲함의근⑥③서울대 교수
▲함창국⑥⑦한양대 교수
▲허봉렬⑥⑦서울대 교수

◇齒科大學

▲강기봉⑥⑥강치과의원장
▲강대건⑥⑦강대건치과의원장
▲강태성⑥⑦강태성치과의원장
▲구창서⑥④구창서치과의원장
▲권태국⑥②권태국치과의원장
▲김규진⑥⑦김규진치과의원장
▲김낙형⑥③성신치과의원장
▲김동화⑥⑥김동화치과의원장
▲김명원⑥④김명원치과의원장
▲김철호⑥⑦김철호치과의원장
▲김행원⑥⑥김행원치과의원장
▲남승우⑥⑥남부치과의원장
▲명동성⑥⑦명치과의원장
▲박기성⑥③박치과의원장
▲성영환⑥⑤성영환치과의원장
▲양후열⑥⑥양후열치과의원장
▲유치린⑥③유치린치과의원장
▲이배진⑥⑥이배진치과의원장
▲이병운⑥⑤이치과의원장
▲이종호⑥②서울대 교수
▲이흥상⑥⑥이흥상치과의원장
▲장계순⑥③장계치과의원장
▲장지상⑥⑤장지상치과의원장
▲정경수⑥⑤동심치과의원장
▲최옥환⑥①최옥환치과의원장
▲한기완⑥③한기완치과의원장
▲한중희⑥⑦한중희치과의원장
▲황영환⑥⑦황영환치과의원장

◇大學院

▲이영덕⑥⑦충남대 교수
▲장경찬⑥⑥변호사
▲황성균⑥⑦국회의원

◇經營大學院

▲안대륜⑥⑦맥산 회장
▲양승현⑥⑦태능 대표이사
▲이만상⑥⑦前대영볼트 대표

◇保健大學院

▲김학엽⑥⑥중의제약연구원
▲배은상⑥②고려대 교수
▲이규환⑥⑤단국대 부총장
▲이기남⑥⑦원광대 교수
▲이양재⑥②한국성문화연구소장
▲이정환⑥③대한산업보건협회
▲최용어⑥⑦한국체육대 교수

◇司法大學院

▲석용진⑥⑦변호사

▲정경식⑥⑤헌법재판소재판관

◇新聞大學院

▲조용직⑥⑦前국회의원

◇行政大學院

▲고준영⑥②영림기업공사대표
▲김경제⑥②산업기술교육소장
▲김두한⑥⑨한성(주)대표
▲김상국⑥②한국통신진흥회장
▲김상영⑥⑤전자신문 대표
▲김익영⑥③경영기술지도사회
▲성낙승⑥⑦前방송광고공사

◇環境大學院

▲박상우⑥⑤국토개발연구원

일 반

◇人文大學

▲강인선⑥⑦ ▲권경수⑥③
▲김동철⑥② ▲김진란⑥⑦
▲김학성⑥① ▲민동홍⑥①
▲박정하⑥④ ▲박홍준⑥⑨
▲백영서⑥① ▲변일원⑥⑦
▲송재봉⑥⑦ ▲안구현⑥⑧
▲윤종민⑥③ ▲이강근⑥⑤
▲이교선⑥⑥ ▲이세영⑥⑦
▲이인용⑥③ ▲이정웅⑥①
▲이정호⑥⑦ ▲이종석⑥④
▲이종호⑥⑦ ▲이화연⑥⑧
▲이흥균⑥⑦ ▲임도현⑥⑦
▲임태영⑥⑨ ▲정은임⑥①
▲조응래⑥⑦ ▲진문규⑥①
▲최남재⑥⑨ ▲최종택⑥⑦
▲허영재⑥① ▲홍구표⑥②
▲홍의영⑥⑤ ▲홍혜경⑥④

◇社會科學大學

▲강대수⑥⑦ ▲강병일⑥④
▲김인성⑥⑥ ▲김중구⑥①
▲남인용⑥⑦ ▲맹주석⑥⑤
▲박경욱⑥⑥ ▲박정호⑥⑦
▲박철민⑥⑧ ▲손문호⑥⑧
▲손수민⑥⑧ ▲양기웅⑥⑥
▲유재한⑥⑦ ▲윤동영⑥③
▲이동진⑥③ ▲이종현⑥⑦
▲이호동⑥⑧ ▲정우현⑥⑨
▲정준희⑥⑤ ▲조성호⑥⑤
▲최 인⑥①

◇自然科學大學

▲강병산⑥⑦ ▲김부열⑥⑦
▲김상균⑥⑧ ▲김지희⑥⑧
▲김해중⑥④ ▲남창훈⑥②
▲노상석⑥⑥ ▲민경규⑥⑧
▲박경범⑥② ▲박광석⑥②
▲박광식⑥⑧ ▲박상용⑥⑨
▲박선욱⑥⑨ ▲박우진⑥④
▲박윤경⑥⑦ ▲박종욱⑥⑦
▲박지용⑥③ ▲변희석⑥④
▲이수경⑥⑤ ▲이윤생⑥③
▲이인근⑥⑧ ▲이종섭⑥⑦
▲이창복⑥⑦ ▲정명관⑥⑦
▲정재풍⑥⑥ ▲조정희⑥⑥
▲조진창⑥⑧ ▲최익규⑥④

◇家政大學

▲경순호⑥① ▲구재욱⑥②
▲권훈정⑥② ▲김옥경⑥⑦
▲김용주⑥③ ▲배영민⑥③
▲백선자⑥④ ▲송연순⑥⑦

▲우지성⑥③
▲이순주⑥⑦
▲이정화⑥⑦
▲이희주⑥⑦
▲조경옥⑥⑤
▲조혜옥⑥③
▲한선희⑥⑦
▲홍산운⑥②

◇看護大學

▲김경남⑥⑧
▲설미이⑥⑥
▲이소우⑥④
▲임숙빈⑥⑨
▲정명자⑥⑥
▲최철희⑥⑦

◇經營大學

▲강인석⑥③
▲고종권⑥⑤
▲김문철⑥②
▲김철주⑥⑨
▲배영민⑥⑨
▲신철호⑥⑥
▲윤주환⑥⑨
▲이용승⑥⑧
▲진형노⑥①

◇工科大學

▲강명한⑥⑨
▲강상운⑥⑦
▲강희신⑥⑨
▲경신호⑥⑨
▲고광빈⑥⑥
▲고석원⑥⑧
▲고준수⑥⑧
▲곽희로⑥⑦
▲구영곤⑥④
▲권순정⑥④
▲권태명⑥③
▲김경덕⑥③
▲김규택⑥⑨
▲김기형⑥④
▲김동명⑥③
▲김동진⑥③
▲김방광⑥⑥
▲김병제⑥⑥
▲김선장⑥⑨
▲김성호⑥⑦
▲김연봉⑥①
▲김영섭⑥⑦
▲김영조⑥④
▲김영호⑥⑤
▲김익수⑥⑥
▲김인한⑥⑧
▲김재관⑥⑦
▲김재창⑥⑨
▲김제영⑥⑦
▲김종식⑥⑦
▲김종원⑥⑤
▲김준철⑥⑦
▲김진옥⑥⑨
▲김찬수⑥②
▲김춘배⑥⑧
▲김태업⑥②
▲김한섭⑥⑤
▲김현우⑥⑥
▲김홍구⑥④
▲김화용⑥⑥
▲나덕주⑥⑦
▲남궁규철⑥⑨

▲이명옥⑥⑦
▲이정원⑥②
▲이화령⑥①
▲장유경⑥③
▲조규연⑥②
▲최윤정⑥④
▲홍계옥⑥⑤
▲황인경⑥④

▲민복희⑥⑧
▲우경선⑥①
▲이화자⑥⑥
▲전경숙⑥⑦
▲정연강⑥③

▲강중구⑥⑦
▲김도석⑥⑦
▲김석진⑥⑦
▲김충현⑥⑨
▲서태환⑥⑦
▲여청모⑥③
▲이 평⑥⑧
▲조재근⑥⑧
▲황성엽⑥⑥

▲강부건⑥⑨
▲강지양⑥④
▲경경환⑥⑦
▲고경현⑥⑧
▲고근희⑥⑧
▲고승희⑥⑦
▲곽광우⑥③
▲구본영⑥⑤
▲구용회⑥③
▲권오갑⑥⑤
▲기군도⑥②
▲김규남⑥①
▲김기풍⑥⑤
▲김덕석⑥⑨
▲김동식⑥①
▲김민석⑥⑥
▲김병교⑥⑨
▲김석현⑥⑧
▲김성중⑥⑦
▲김승준⑥⑥
▲김영규⑥⑧
▲김영웅⑥②
▲김영춘⑥⑤
▲김용미⑥③
▲김인선⑥⑨
▲김자영⑥⑧
▲김재업⑥①
▲김정준⑥②
▲김종성⑥②
▲김종완⑥⑦
▲김종원⑥④
▲김진영⑥②
▲김진후⑥⑨
▲김창욱⑥⑦
▲김춘영⑥⑨
▲김평호⑥⑤
▲김현원⑥③
▲김형준⑥②
▲김화연⑥⑨
▲김희제⑥⑥
▲나영재⑥⑥
▲남기흥⑥③

▲남선경⑥⑦
▲노효상⑥⑨
▲문상선⑥⑤
▲문정석⑥⑧
▲문종규⑥④
▲박기철⑥⑧
▲박동재⑥⑤
▲박상녕⑥⑧
▲박상영⑥⑨
▲박세화⑥⑧
▲박원경⑥③
▲박윤성⑥①
▲박재훈⑥②
▲박중현⑥②
▲백세흠⑥⑦
▲백영진⑥⑤
▲변영삼⑥①
▲봉관명⑥⑦
▲서동수⑥⑧
▲서봉수⑥⑥
▲선우현범⑥⑦
▲소진태⑥⑦
▲손성진⑥⑧
▲손태원⑥④
▲송영부⑥⑦
▲신건학⑥①
▲신윤수⑥⑥
▲신태형⑥⑤
▲심재건⑥⑦
▲심형보⑥⑧
▲안성우⑥③
▲안지훈⑥⑤
▲안호순⑥⑧
▲양상현⑥③
▲어양담⑥⑨
▲오경수⑥⑥
▲오열근⑥④
▲오치재⑥④
▲원영근⑥③
▲유상원⑥⑦
▲유용섭⑥⑨
▲유용석⑥②
▲유정근⑥⑦
▲유형근⑥⑧
▲윤 문⑥⑦
▲이강낙⑥②
▲이건영⑥①
▲이교상⑥⑦
▲이규철⑥⑦
▲이덕표⑥④
▲이동호⑥⑨
▲이명학⑥⑦
▲이민식⑥⑦
▲이병수⑥②
▲이상욱⑥⑧
▲이성기⑥⑧
▲이세규⑥⑧
▲이시관⑥⑦
▲이용원⑥⑦
▲이원구⑥⑨
▲이원복⑥⑧
▲이인범⑥⑥
▲이재용⑥③
▲이재훈⑥③
▲이정구⑥⑥
▲이정웅⑥③
▲이종률⑥⑦
▲이종훈⑥⑦
▲이지영⑥①
▲이창범⑥①
▲이창우⑥⑧
▲이태형⑥⑦

▲남성능⑥⑥
▲노홍규⑥⑦
▲문재창⑥③
▲문제춘⑥⑧
▲박국배⑥⑤
▲박동원⑥④
▲박동혁⑥⑨
▲박상신⑥⑦
▲박상철⑥⑨
▲박용태⑥③
▲박원호⑥⑨
▲박응대⑥⑦
▲박정근⑥⑦
▲백문홍⑥②
▲백승철⑥⑦
▲백효석⑥⑥
▲변우진⑥⑨
▲부창렬⑥①
▲서동식⑥⑤
▲서선덕⑥⑨
▲성정길⑥⑦
▲손상원⑥⑦
▲손우태⑥⑨
▲송동익⑥⑧
▲송진억⑥⑨
▲신상희⑥④
▲신정철⑥②
▲심일섭⑥⑨
▲심한배⑥⑦
▲안광균⑥⑧
▲안용모⑥⑧
▲안진형⑥⑧
▲양민양⑥⑦
▲양승일⑥⑨
▲여민중⑥⑥
▲오대식⑥①
▲오주석⑥③
▲우영보⑥⑨
▲원종률⑥③
▲유승후⑥⑤
▲유우근⑥⑦
▲유인종⑥⑨
▲유한근⑥⑨
▲육내승⑥①
▲윤석호⑥⑥
▲이강명⑥⑦
▲이관영⑥③
▲이규렬⑥⑦
▲이근욱⑥⑧
▲이동규⑥⑦
▲이만흥⑥⑧
▲이명호⑥⑦
▲이병길⑥⑤
▲이복춘⑥⑨
▲이석관⑥④
▲이성원⑥⑧
▲이수목⑥⑧
▲이완기⑥⑨
▲이우길⑥⑦
▲이원도⑥⑤
▲이익용⑥①
▲이재성⑥⑥
▲이재형⑥⑤
▲이재훈⑥⑤
▲이정균⑥②
▲이종대⑥②
▲이종원⑥⑧
▲이준영⑥③
▲이찬홍⑥⑨
▲이창복⑥①
▲이충훈⑥⑤
▲이택식⑥⑧

▲이문형50
▲이석구62
▲이수정94
▲이승한71
▲이영호59
▲이정자64
▲임이균65
▲장선미90
▲정진기57
▲조병하65
▲최수영83
▲최진석66
▲한덕환50
▲한용필41
▲홍성만74
▲황선호60

◇音樂大學

▲강정숙59
▲고태은83
▲김영숙52
▲김혜서89
▲목동균67
▲신정숙68
▲엄의경85
▲유동열84
▲육영희68
▲이승혜96
▲이정운96
▲장복희81
▲정은자87
▲최선용80
▲허원숙81
▲홍주희86
▲황광섭71

◇醫科大學

▲고광철85
▲권오훈82
▲김법성84
▲김성수73
▲김영택52
▲김은주88
▲김진하47
▲김철호80
▲김희진80
▲류백렬88
▲문홍세60
▲박노현84
▲박성희75
▲박용섭56
▲배은정87
▲신 실68
▲안병현73
▲양만규49
▲옥흥남60
▲유병철77
▲유형록63
▲윤상웅93
▲이관희82
▲이상일47
▲이용규60
▲이종주63
▲이준희81
▲이혁표88
▲이효석74
▲장청순60
▲지석봉81

◇齒科大學

▲강봉기71
▲강운모86

▲이상준65
▲이석목70
▲이수화93
▲이영태78
▲이은방59
▲이태목67
▲장동필90
▲정은미87
▲정희용80
▲조용한77
▲최영해92
▲최희선70
▲한성은59
▲허길우68
▲황선욱94

▲고원주96
▲김난희73
▲김영철62
▲남윤경96
▲박영자59
▲심선화76
▲원이경61
▲유희웅64
▲이미자65
▲이영자60
▲이해식69
▲장현길65
▲조현수86
▲한정열96
▲홍종진72
▲홍지영87

▲구홍희83
▲김동창64
▲김병철50
▲김영기77
▲김용희93
▲김종현55
▲김창진81
▲김한수88
▲노관택55
▲류희철88
▲박 관60
▲박선재68
▲박영일50
▲박춘식78
▲서재열76
▲신희섭74
▲안종국76
▲양문선88
▲우영남67
▲유석희72
▲윤광선75
▲윤석주79
▲이동모73
▲이승훈80
▲이원기85
▲이종훈55
▲이철호79
▲이호경77
▲장기홍66
▲조영기56
▲한형주52

▲강신구75
▲고백진87

▲고재승67
▲권순배86
▲김명진86
▲김영구71
▲김영수61
▲김오환68
▲김용철59
▲김일영65
▲김정복78
▲김진수84
▲김형조85
▲남일우62
▲문성훈76
▲박기욱56
▲박창식71
▲송광수66
▲안성모74
▲양재희81
▲오기돈67
▲우상두83
▲은세원65
▲이금룡64
▲이응렬58
▲이재학78
▲이중희57
▲임광수66
▲정형태80
▲지명주88
▲최세원83
▲최순철79
▲한성동57
▲황해순62

◇大學院

▲강중구89
▲김덕환77
▲김항목76
▲백대균82
▲송석훈78
▲이규금81
▲이은기84
▲정태우78
▲주홍재63
▲허만길79

◇經營大學院

▲권영천67
▲박준석69
▲조현국76

◇保健大學院

▲김덕성73
▲남광현73
▲박승기84
▲윤배중82
▲이형진87

◇司法大學院

▲남용희64

◇新聞大學院

▲김용범75
▲이경자72

◇行政大學院

▲김광영81
▲김홍수63
▲윤종화72
▲정병철77
▲최봉기77

◇環境大學院

▲고성하77

▲곽무영77
▲김기석74
▲김신목65
▲김영균65
▲김영주70
▲김용선47
▲김의식44
▲김재덕74
▲김진수61
▲김창우66
▲김화봉83
▲류영남89
▲문제백71
▲박익원67
▲백선호79
▲송학선78
▲양상덕83
▲엄인웅84
▲우광균66
▲유동수56
▲이교인72
▲이원수57
▲이재은78
▲이정웅75
▲이청형58
▲임택재61
▲주명자69
▲최낙준78
▲최수광61
▲한금남89
▲허남기83

▲김기룡84
▲김채운58
▲박진규83
▲백상창74
▲송홍한80
▲이노종76
▲장정순75
▲주양자66
▲한우근48
▲홍남표73

▲김광식96
▲정남진76

▲김운국72
▲박경석71
▲배길한77
▲이종현68
▲정해운66

▲유종일74
▲황영일72

▲김길조64
▲노선호68
▲정기욱73
▲진익철83
▲최석환63

▲권용수76

▲박동천89
▲안정애77

◇최고경영자과정

▲고정웅40
▲김두환17
▲김성수14
▲김이환41
▲김주인7
▲김진익11
▲남석우35
▲마창완24
▲박세원19
▲박용진37
▲박종구21
▲배진호34
▲변종희17
▲심계진36
▲엄상호18
▲오병제21
▲유영걸26
▲이기상20
▲이상운5
▲이승권35
▲이원배20
▲이은수15
▲전재욱11
▲정길연38
▲정복택13
▲정호근33
▲주상길38
▲최운원27
▲한유동15
▲홍원표10
▲황인수29

◇최고산업전략과정

▲곽영구3
▲김동권1
▲김현철6
▲박용택17
▲서정률15
▲손창근14
▲염석훈7
▲이현희15
▲조시영2
▲조종제14
▲한동운14
▲홍운철12

◇국가정책과정

▲가점노39

▲박상우81

▲권국주38
▲김병곤41
▲김수환15
▲김정욱32
▲김준화18
▲노영인41
▲문승용4
▲박승호4
▲박정재17
▲박종식41
▲백영기3
▲성기백30
▲안기영18
▲염석훈21
▲유시중19
▲유준근4
▲이대희20
▲이상홍1
▲이운규29
▲이운재29
▲장효림38
▲정건택21
▲정덕상35
▲정의순4
▲조양호29
▲최대업11
▲한영수34
▲허진구2
▲홍종대4
▲황철수4

▲국동길15
▲김완규15
▲박강식15
▲박인규5
▲선병돈15
▲심재명17
▲유영완17
▲장대훈9
▲조정제17
▲채규평3
▲현인주14

▲강승수31

▲강영석38
▲김영수39
▲김종원34
▲김창수35
▲문영환21
▲손일조29
▲신 정28
▲신현대31
▲윤영우19
▲이석수35
▲이의영34
▲이종식41
▲이진원29
▲이형배16
▲장대현37
▲전영배5
▲전재구1
▲조사홍31
▲천세욱9
▲탁병오38

◇고급금융과정

▲강재신10
▲김남석9
▲김병하3
▲김원태5
▲배판규7
▲송창수10
▲유영진9
▲이호석4
▲장관중9
▲조영환9

◇한국도로공사

▲강상규
▲권 혁
▲김경석
▲김성환
▲김영진
▲김일환
▲김정훈
▲김태수
▲박영도
▲박재범
▲봉영채
▲설운호
▲손창익
▲유한상
▲이상돈
▲이성수

▲고한풍26
▲김영호35
▲김종환44
▲문병대41
▲박명서27
▲손호인6
▲신작우8
▲오정숙43
▲이상재20
▲이영숙17
▲이재돈28
▲이지두34
▲이택래41
▲이홍식23
▲전병순42
▲전윤수39
▲정수웅20
▲지창훈4
▲최기문42

▲공지수7
▲김명근2
▲김북현8
▲박인규10
▲서승원3
▲우정기3
▲이명준5
▲임대석10
▲장영찬8
▲조용욱8

◇배화여고

▲김광철
▲유영숙
▲정명석
▲정천근
▲한정길

◇농수산물유통공사

▲김광진
▲김상배
▲박감춘
▲윤인식
▲조동욱

▲김미희
▲김희국
▲유희숙
▲이해연

▲이용은
▲이창근
▲이해욱
▲정운용
▲조대연
▲한승환

◇중외제약

▲고동환
▲권희안
▲김종민
▲김지배
▲남웅현
▲백두종
▲서동철
▲오달균
▲유승국
▲이기호
▲이용휘
▲이준용
▲조유섭
▲지정욱
▲최영길
▲최학배
▲함은경

◇(주)경방

▲김진홍
▲신현광
▲이용관

◇삼부토건

▲강운식
▲오흥태
▲조항구
▲홍석곤

◇배화여고

▲김광철
▲유영숙
▲정명석
▲정천근
▲한정길

◇농수산물유통공사

▲김광진
▲김상배
▲박감춘
▲윤인식
▲조동욱

▲김미희
▲김희국
▲유희숙
▲이해연

▲이정근
▲이형준
▲정경자
▲정종홍
▲최영철
▲황부연

▲구본암
▲김영미
▲김준섭
▲김학엽
▲박동욱
▲백승현
▲서형석
▲오세웅
▲윤동기
▲이영섭
▲이주원
▲이혜영
▲조재천
▲최상호
▲최중부
▲최현식
▲홍성선

▲박종원
▲이상섭
▲이준섭

▲김진영
▲이근섭
▲최태식

▲원영환
▲유한옥
▲정정선
▲조장태

월 계 = 57,880,000
누 계 = 566,948,536

지 부

◇한국도로공사

▲강상규
▲권 혁
▲김경석
▲김성환
▲김영진
▲김일환
▲김정훈
▲김태수
▲박영도
▲박재범
▲봉영채
▲설운호
▲손창익
▲유한상
▲이상돈
▲이성수

▲강용규
▲권순덕
▲김상규
▲김영웅
▲김인재
▲김재형
▲김종인
▲박선홍
▲박영하
▲박찬민
▲서진원
▲손병문
▲안상섭
▲윤석구
▲이상원
▲이용양

“지금 동창회 신용카드를 신청하세요”

〈발급기간: 97년 11월 1일 ~ 11월 30일〉

개 인

◇經營大學

▲김석진78

◇工科大學

▲강성택95

▲하태권91

◇法科大學

▲이희철51

◇師範大學

▲김민정66

◇醫科大學

▲김정화88
▲차혜영67

◇최고경영자과정

▲유명화36

▲이상우94